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I (1994)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최근, 필자의 목회의 첫사랑을 쏟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오렌지사랑의교회를 12년간 목회할 때 매주 주보에 실린 설교요약을 검토하면서 그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오늘날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 생명샘(living Stream)이란 제목으로 한영편집으로 캄보디아 선교지의 교회를 섬기는 캄보디아 동역자들과 나눌 목적에서 발행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목회를 시작한 후 5년이 되기까지 개혁신앙을 증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필자는 스스로 평가할 때 변화되지 않는 교우들의 영적 삶을 보고 슬럼프에 빠진 일을 기억한다. 그 대답을 얻기위해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3년동안 공부함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되었다. 강해설교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프로젝트를 목회에 적용하여 1996년도 졸업할 때, 나의 목회사역과 나의 신학적 이론이 더욱 성경적 신학과 신앙으로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

1994년 매주마다 설교한 내용이 현재의 나의 신학과 신앙과 동일한 흐름을 지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용기를 내었다. 그 때는 단지 한글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지금은 영어권 독자나 나아가 장차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크마에로 번역되어 나눌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본래 생명샘이란 제목의 3권의 책은 브니엘 장로교회와 캄보디아 사역을 하면서 틈틈히 적어 놓은 나의 신앙 단상들을 모은 것인데, 여기서는 오렌지 사랑의 교회 목회할 때 강단에서 외친 설교의 요약을 그 이름으로 편집하였다.

AI 의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나의 글들을 번역함과 편집하는데

이용되었으나 그 모든 내용은 필자의 검토를 통해 되었기에 나의 번역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 대한 나의 이해와 강조점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신앙경주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 목표, 복음 전파에 이르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영적 활력소가 되기를 기도한다.

2004. 6.25.

주 안에서

전화령 목사, 미국 포모나 서재에서

목차

1. 너는 나를 따르라 (요 21:20-25)
You follow me (Jn 21:20-25)
2. 구원의 주권자를 기억하라 (롬 9:19-33)
Remember the Sovereign Lord of Salvation (Rom 9:19-33)
3. 자원하신 십자가의 길 (요18:1-11)
The Scripture and Revival (Isaiah 55:6-1)
4. 그리스도의 확실한 죽음 (요19:31-42)
The certain death of Christ (Jn 19:31-42)
5. 하나님 나라의 숨은 일꾼들 (요19:38-42)
Hidden workers of the kingdom of God (John 19:38-42)
6. 성찬의 의미 (눅 22:14-23)
The meaning of the Communion (Luke 22:14-23)
7. 복음의 종, 마울 (롬1:1-7)
Paul, Servant of the Gospel (Romans 1:1-7)
8.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롬1:8-13)
Reasons to listen to the gospel again (Romans 1:8-13)
9. 기독교의 효도관 (엡6:1-3)
Christian view of filial piety (Ephesians 6:1-3)
10. 하나님의 축복의 손 (창26:12-22)
God's hand of blessing (Genesis 26:12-22)
11.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롬1:14-17)
You are indebted to everyone (Romans 1:14-17)
12.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롬1:18-25)
The inevitable wrath of God (Romans 1:18-25)
13. 신자안에 있는 영적싸움(롬7:14-27)
Spiritual battle within believers (Romans 7:14-27)
14. 하나님 진노의 증거 (롬1:26-32)
Evidence of God's wrath (Romans 1:26-32)

15.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롬2:1-11)
You who judge others! (Romans 2:1-11)
16. 외식의 가면을 벗어라 ! (롬2:12-24)
Take off the mask of hypocrisy! (Romans 2:12-24)
17.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롬2:26-29)
Circumcision is of the heart (Romans 2:26-29)
18.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롬3:1-8)
Our God who never fails (Romans 3:1-8)
19. 의인은 없다 (롬3:9-20)
There is no one righteous (Romans 3:9-20)
20. 오직 예수 안에서 (롬3:21-26)
Only in Jesus (Romans 3:21-26)
21. 구약선진들과 같은 믿음(롬4:1-17)
The same faith as the Old Testament ancestors (Romans 4:1-17)
22.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롬4:17-25)
Faith is a gift from God (Romans 4:17-25)
23.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자! (롬 5:1-5)
Let's go to the sea of grace! (Romans 5:1-5)
24.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 (롬5:6-10)
The amazing salvation I received (Romans 5:6-10)
25. 생명에 사로잡힌 삶 (롬5:12-21)
A life captivated by life (Romans 5:12-21)
26. 주님이 구한 교회의 영광(요17:20-26)
The glory of the church saved by the Lord (John 17:20-26)
27. 복음전파의 부담을 가지라(롬9:1-5)
Take on the burden of spreading the gospel (Romans 9:1-5)
28. 영원한 승리의 사람들(롬8:31-39)
The People of eternal victory (Romans 8:31-39)
29. 보혜사이신 성령님 (롬8:26-30)
The Holy Spirit, the Comforter (Romans 8:26-30)
30. 성령의 인도를 피하지 말라 (롬8:12-17)
Do not avoi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Romans 8:12-17)

31. 말로 다할 수 없는 소망 (롬8:18-25)
A hope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Romans 8:18-25)
32.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 (롬5:6-10)
The wonderful salvation I receive (Rom 5:6-10)
33. 성결하게 사는 방법(롬6:12-14)
How to live in holiness (Romans 6:12-14)
34. 순종으로 이루는 거룩 (롬6:15-23)
Holiness achieved through obedience (Romans 6:15-23)
35. 율법을 주신 목적 (롬 7:7-13)
Purpose of giving the law (Romans 7:7-13)
36.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라 (롬7:1-6)
Serve with newness of spirit (Romans 7:1-6)
37.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요16:16-24)
Christ's intercessory ministry (John 16:16-24)
38. 그 날 이후의 큰 변화 (요16:25-33)
Great changes after that day (Jn 16:25-33)
39. 주님이 구한 영광 (요17:1-5)
The glory sought by the Lord (Jn 17:1-5)
40. 주님이 구한 보장(요17:6-19)
The Protection sought by the Lord (John 17:6-19)
41.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9:1-19)
The spotless Lamb of God (John 19:1-19)
42.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라! (요19:17-30)
Look at the cross at Golgotha! (John 19:17-30)
43. 주님이 준비하신 부활아침식탁 (요21:1-14)
The Resurrection Breakfast Table prepared by the Lord (Jn 21:1-14)
44.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 (요21:15-20)
Do you love me ? (John 21:15-20)
45. 하나님으로 부터 난 구원 (롬9:6-18)
Salvation from God (Romans 9:6-18)

1. 너는 나를 따르라 (요 21:20-25)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 진실되이 주님만을 상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바울은 딤후 2:3-7 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실 본위의 삶을 경주자로, 군사로, 그리고 농부로 비유했다. 이것은 그 만큼 진실되이 따르는 삶이란 뜻이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떠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려는 소경 바디매오의 부르짖음이 있어야하며 다른 사람을 간섭하려는 마음에 서 해방되어야한다. 베드로는 사도요한의 장래에 대한 일을 걱정하였다. 주님의 답변은 그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궁중심리에 이끌려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되이 마음과 마음의 부딪힘으로 그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증거품의 모습을 나타내야한다. (24)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개인적으로 자립적으로 따라야 되는 일이다. 주님을 진실되이 따르는 자에게 자연히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있다. 24절에 요한의 증거를 참이라한 것은 그의 삶에서 참된 증인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말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은 요한, 그는 성질이 급한 사람ियो, 탐욕의 사람이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요한은 변화받아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 앞에선 산증인이 되었다. (계1:9) 주님을 따르는 자는 증거품의 인격과 삶이 나타나야한다.

세째, 온세상을 복음화할 책임을 안고 사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편협된 삶이아니다. 혼란과 좌절에 빠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삶이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경 말씀으로 온 지구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화, 복음화, 성경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온 세상은 악령의 역사로

뒤범벅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 땅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의미인 것이다.

1. Follow me (John 21:20-25)

The theme of the Gospel of John, “You receive the eternal life only by believing in Jesus,” means, in other words, “Following Jesus.” What does it mean to follow Jesus?

First, it means that we truly follow only the Lord. In 1 Timothy 2:3-7, Paul compared the life of a Christian based on truth to that of a runner, a soldier, and a farmer. This means a life that is followed faithfully. The Lord, who entrusted Peter with a mission, told him to follow me. This must be the cry of blind Bartimaeus who wants to leave the heart of relying on others and rely only on the Lord, and must be liberated from the heart of interfering with others. Peter was worried about the future of Apostle John. The Lord's answer was to have nothing to do with him and to follow me. Following the Lord should not be guided by court psychology, but should come only from a heart that truly trusts Him with heart and mind.

Second, the appearance of the evidence must be indicated. (24) Following the Lord is something that must be done individually and independently.

Evidence will naturally appear to those who truly follow the Lord. The fact that John's testimony is true in verse 24 means that the evidence of a true witness was revealed in his life. John, called from the Sea of Galilee, was a man of short temper and greed. After witnessing the Lord's resurrection, John was transformed and testified of Christ until his death, becoming a living

witness before the Lord. (Revelation 1:9) Those who follow the Lord must demonstrate their character and life as evidence.

Third, he lives with the responsibility to evangelize the whole world. Those who follow the Lord do not live narrow-minded lives that seek their own benefit. It is a life that conquers the entire world in confusion and frustration with the Word. These are people who live with the will to Christianize, evangelize, and Scripturize all souls on earth with the words of the Bible, which this world cannot contain. The whole world is mixed with the history of evil spirits. We live with the responsibility of moving this land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death to life with the written Word, the Bible. This is what it means to follow the Lord.

2. 구원의 주권자를 기억하라 (롬 9:19-33)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다. 바울은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산다고 했다. 먼저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다음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말이다.

1.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20) 토기장이의 비유가 보인 의미는 우리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삭개오의 구원도 그가 먼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초청이 먼저 있었기에 거기 에 응답할 수 있었다. (눅19:5-9) 역시 그는 구원주이시면서 섭리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상하게 이루시는 구원의 주인이시다. 그는 우리 속에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고야 마신다. (빌 1:6)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거야 마신다. (롬8:30)

2. 이 사실은 구약의 실례 통해서도 잘 알려진다.

바울은 두 선지자의 예를 가지고 이를 설명했다.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말한다.(롬9:20-25) 자기 백성 아닌자 를 자기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자를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선포는 이스라엘의 행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 때문이었다. 다음,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도 남은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주권을 강조 하셨다. (27-27절)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 강조된 주권적 구원은 오늘날 에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주시기로 작 정된자만이 예수를 믿는다. (행13:48) 주님의 양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주권의 손아래 두려움으로 감사하며 감격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리스도는 거친돌 이 되고 떨어지는 반석이되기 때문이다.

2. Remember the Sovereign Lord of Salvation (Romans 9:19-33)

A Christian's salvation is not up to him, but entirely in the hands of God's sovereignty. Paul said, "We chase after that which has been caught, and John said that when we realize God's love, we live a life of God's love." This means that first is not man, but God, and next is human effort.

1. Why did God become the owner of salvation?

Because He is the Creator. (20) The meaning of the potter's parable is that the sovereignty of our salvation belongs only to God. Zacchaeus' salvation was not due to him first accepting the Lord, but because the Lord's invitation came first and he was able to respond to it. (Luke 19:5-9) He is also the Lord of salvation and the Lord of salvation who accomplishes all things kindly because of his providential timing. He must complete the salvation He began in us to the end before He can drink it. (Philippians 1:6) For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called beforehand, and those whom he called, he justifies, and those whom he justifies, he glorifies. (Romans 8:30)

3. This fact is also well known through examples from the Old Testament.

Paul explained this with the example of two prophets. First, through the prophet Hosea, he speaks of God's sovereign salvation. (Romans 9:20-25) The declaration that those who are not his people are his people and that he loves those who are not loved is not due to Israel's actions, but God's. It was because of the hand of total grace. Next, in Isaiah's prophecy, he also emphasized the sovereignty that not all of Israel would be saved, but only a remnant would be saved. (Verses 27-27) The sovereign salvation emphasized through these two prophets is the same today. Not everyone believes in Jesus, but only those who have been appointed to give eternal life believe in Jesus. (Acts 13:48) Only the Lord's sheep are saved.

We must live as a people who fulfill His will under the hand of the sovereign, with fear, gratitude, and excitement. For those who do not, Christ becomes a rough stone and a falling rock.

3. 자원하신 십자가의 길 (요18:1-11)

예수님은 억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시다.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신 사실을 오늘 본문에 세가지 사실로 분명히 보인다.

1. 모든 위험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잡히시는 장소로 가셨기 때문이다. (1-2)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모이는 곳으로 유대도 그곳을 알고있었다. 원수들에게 시간과 장소와 방법까지 노출된 사실을 아심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길이 자원의 길임을 증거한다.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은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즐고히 선택하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자원의 심바가를 질 때 주님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자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반드시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벗어날 능력을 가짐에도 스스로 친히 잡혀주셨다. (3-7)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들 앞에서 “내 노라” 라는 말한마디로 자신의 신성을 보이셨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덴티를 보이신 그 말한마디에 멀리 떨어졌다. 베드로는 주님을 돕기 위하여 주님을 잡으려는 말고의 귀를 검으로 베었다. 그 때 주님은 검을 집에 콧으라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12 명 더 되는 천사를 동원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요? 라고 하셨다. 주님은 능력이 무한한대도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이런 자원의 십자가를 지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의 힘으로 성장되어간다. 그래서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있다고 했다. (고전 7:29-30)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가시 역시 자원의 심령으로 받아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시는 도리어 우리를 영화롭게한다.

3. 인정의 줄을 끊으시고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9-11)

베드로의 충성은 대단했다. 주님이 최고의 위험을 당하시는 길목까지 따랐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인정의 줄이었다. 주님은 도리어 그것을 만류하셨다. 마귀의 속삭이는 인정의 줄, 천지들의 인정의 끈, 제자들의 인간적 동정의 줄은 그의 길을 막았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마저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주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사람들이다.

3. The voluntary way of the cross (John 18:1-11)

Jesus was not forced to come and bear the cross. He is the one who voluntarily chose the way of the cross. Three facts clearly show in today's text that the Lord voluntarily bore the cross.

1. Because even though he knew all the dangers, he went to the place where he was caught. (1-2) The Garden of Gethsemane was a place where he often gathered with his disciples, and Judea also knew about it. Even though the Lord knew that the time, place, and method were revealed to the enemies, the

Lord continued on that path. This proves that the Lord's cross path is the path of resources. The Lord, who prayed until his sweat turned into blood, finally happily chose his Father's will. When Simba gave up resources for the Junin, the Lord said that he was blessed. Therefore, it is natural to bear the burden of this saying and have a poor spirit.

2. He was caught by himself even though he had the ability to escape. (3-7)

The Lord showed His divinity in front of the enemies who came to capture Him by saying, "I am My Son." They walked away from the one word that showed his identity. In order to help the Lord, Peter cut off the ear of Malchus who was trying to catch the Lord with his sword. At that time, the Lord said, "Put your sword in its sheath," and asked, "Do you think that even now he cannot mobilize 12 more angels? Then, how will God's will be done?" He said. Even though His power is infinite, the Lord walked the path of the cross Himself. The Lord's church grows through the power of those who carry the cross of these resources and build others up. That is why Paul said that he always carries the cross to appropriate virtue. (1 Corinthians 7:29-30) When we accept our personal thorns as resources, the problem is solved and the thorns glorify us.

3. Because He cut the cord of recognition and received the cup of the cross. (9-11)

Peter's loyalty was great. We even followed the path where the Lord faced the greatest danger. But his loyalty was a string of recognition. On the contrary, the Lord discouraged it. The whispering approval of the devil, the approval of his acquaintances, the human sympathy of his disciples blocked his way. However, the Lord coldly rejected even this and went the way of the cross.

This is the path of the cross that our Lord walked. The Lord's church is people who voluntarily bear the cross and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Lord.

4. 그리스도안의 축복(롬8:1-11) 1994.10.30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육이나 영 이냐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 아니면 사망을 맞보면서 산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가라는 회의를 가지기도 한다. 로마서 8장은 이런 여정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축복의 약속들로 가득차 있다. 그 축복은 한마디로 "성령충만한 삶의 약속"이다. 생명의 성령, 양자의 영, 첫 열매로서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것이다. 그러면 그 축복은 무엇인가?

먼저, 그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마귀의 송사도 하나님의 공의앞에서도 심판을 받지않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 모든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양심의 송사는 주님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의 용서를 맞본다.

또한 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은 본래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던 자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자 된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모든 죄가운데서 해방시키며 참 자유를 안겨준다.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었다해서 경망된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그의 모든 방면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경건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다.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을 이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마침내 부활시키신다.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되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놀라운 창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 놀라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을 잊지말라.

4. Blessings in Christ (Romans 8:1-11) 1994.10.30

Although a Christian who is saved by faith has received amazing blessings, he lives in conflict every day. We live at the crossroads of choosing between flesh and spirit, tasting life or death. Sometimes we have doubts about whether this is the life of the gospel. Romans 8 is full of promises of blessings on this journey, like an oasis in the desert. That blessing is, in a word, “the promise of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Christians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of life, the Spirit of adoption, and the Holy Spirit as the first fruits possess this amazing blessing. So what is that blessing?

First, he is not condemned. These are people who have clear grounds for not being judged even by the devil's justice before God's justice. This is because all sins have been dealt with through the merits of Christ's death. When we move forward with gratitude for the Lord's merits, our conscience tastes the forgiveness of those without condemnation.

He also fulfills the requirements of the law. The law is originally righteous, holy, and good, but those who could not achieve this by their own strength are now able to achieve it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law of the Holy Spirit of life liberates us from all sin and gives us true freedom. Christians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do not live a frivolous life just because they have gained freedom; on the contrary, they live with godliness in order to achieve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n all aspects of their lives.

And a Christian is a person who lives by the power of resurrection. The Holy Spirit, who achieved the resurrection from the Lord's death, comes into us and finally resurrects our mortal bodies. What does this mean other than that God is the driving force that makes impossible things possible in our real lives? Therefore, because a Christian possesses this ability, he can lead an amazing creative life anytime, anywhere. Don't forget that you belong to Christ, called to live this amazing life.

5. 성경과 부흥 (사55:6-1) 1994.10.23

부흥이란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소생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이란 은혜의 도구를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주임무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부흥을 기대하는 자는 성경 앞에 올바르게 서야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첫째, 성경은 부흥의 불쏘시게이기 때문이다. (8-10)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 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왜 완전한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왔기에 지혜의 책이며, 방 법의 책이며, 능력의 책이다. 10-11절에 보면 토지위에 떨어지는 눈과 비가 열매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형통케 한다. 이 말씀에 기대는 자는 반드시 부흥의 불을 가슴 속에 간직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성경은 바로 대한 사람에게 열려지기 때문이다. 인격자 간의 진정한 교제는 바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사림이 있어야 한다. 목말라 하는 자의 심정이 우리 에게 있을 때 말씀은 열려진다.(1)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2,3,6)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한다.(7)

마지막으로 성경을 바로 대할 때 영적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12-13) 성경체험주의는 너무 귀하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한다. 부요가 생긴다. 기쁨과 평강과 찬양이 생긴다.(12)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4-5)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부흥은 언제나 말씀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여짐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것은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5. The Scripture and Revival (Isaiah 55:6-1) 1994.10.23

Revival refers to the revival of the soul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is work of revitalization occurs through the tools of grace such as prayer and the Word. Therefore, the main mission of the apostles in the early church was to pray and spread the word. Above all, those who expect revival must stand correctly before the Bible. Why should this be so?

First, because the Bible is the kindling of revival. (8-10) It is only the perfect Word of God that can revive our souls. Why is it complete? This is because it comes from the perfect God. Because it came from there, it is a book of wisdom, a book of method, and a book of power. In verses 10-11, just as the snow and rain that fall on the land produce fruit, the word of God does not return in vain, but accomplishes God's will and makes the Lord's work prosper. Those who lean on these words will inevitably keep the fire of revival in their hearts.

Second, the Bible is open to those who are open to it. For true communication between personalities, the right attitude towards each other is important. Our attitude before God is very important.

There must be fellowship. When we have the heart of a thirsty person, the Word is opened. (1) There must be a zeal to seek it. (2, 3, 6) And a movement of repentance must occur where we abandon our thoughts and return to the Lord. (7)

Lastly, spiritual experience occurs when you approach the Bible correctly. (12-13) Biblical experientialism is too precious. It makes you a person with a balanced personality without being biased in one direction. Wealth arises. Joy, peace, and praise arise. (12) And the work of healing occurs. (4-5) It allows us to see the glory of God. This will be Jehovah's honor and an everlasting sign. Revival is always an event that manifests itself as the fire of the Word is kindled in our hearts. This begins the moment you stand in front of the Word.

6. 그리스도의 확실한 죽음 (요19:31-42) 1994.3.13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확실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는 관찰은 그의 죽음을 목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의 완전한 죽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다. 만물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구속을 완성한 것이기에 최대의 영원한 영광이 돌아간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버림받은 순간은 하나님으로 부터의 완전한 죽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건짐을 얻게되었던 것이다. 인생의 근본문제인 죄가 완전히 처리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처리며 모든 소망의 첫걸음인 것이다.

둘째, 그의 완전한 죽음은 세상임금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함이다.

창세기 3:15절에 예언된 원수의 머리가 상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이때 성취되었다. 일곱마귀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마귀를 멸하셨다. 그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가도록 되어있다. 자연현상과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 뒤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권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처리된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마귀는 줄행랑을 놓게 하셨다.

세째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운명할 때 두가지 뚜렷한 현상이 보였다.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렸다는 뜻이다. 다른 것은 바윗돌이 터지며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였다. 십자가상에 매달린 강도의 구원을 보라! 그는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갔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단순히 믿을 때 그 순간 즉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복이다.

6. The certain death of Christ (John 19:31-42) 1994.3.13

Apostle John, unlike other gospel writers, emphasizes the certain death of Christ. The observation that soldiers pierced his side and water and blood came out can only be made by those who witnessed his death. What does it mean that Christ's death is certain?

First, his perfect death means that God received eternal glory. Where is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all things and of humans? It is to give glory to God. Christ's perfect death on the cross is God's will and completes redemption, the foundation of God's kingdom, and thus the greatest eternal glory has been returned.

Christ died for the sins of his people and we gained eternal salvation. So his moment of abandonment on the cross showed his complete death from God.

Through his abandonment, we were saved. Sin, the fundamental problem of life, has been completely dealt with. This is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and the first step to all hopes.

Second, his complete death announces the complete destruction of the king of the world. The prophecy in Genesis 3:15 that the enemy's head would be bruised was fulfilled at this time. In this age when the seven devils are active, the Lord completely destroyed the devil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As long as you go out in his name, the devil will run away. The power of the devil lurking behind natural phenomena, any disease, or any problem has all been dealt with through the Lord's death on the cross. As long as you give a command in the name of the Lord, the devil will let go.

Third, his death brought about reconciliation with God. When the Lord died, two distinct phenomena were observed. In one, the veil of the sanctuary was torn. This means that the way to boldly move towards God in the name of the Lord has been clearly opened. Another thing was that rocks exploded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graves. It was shown that the death of Christ would bring about new life in which the spiritually dead would be resurrected. Look at the salvation of the thief hanging on the cross! At the moment of his death, he relied on Christ and went forward. When he repented of his sins and simply trusted in the Lord, at that moment he was instantly saved and entered paradise. This is the blessing of Christian salvation.

7. 하나님 나라의 숨은 일꾼들 (요19:38-42) 1994.3.20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은 장사되심의 사건이 더욱 더 증거한다. 그의 장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죄책과 모든 저주와 형벌이 장사됨이다. 이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는 숨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본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였다. 산헤드 린 공의회의 한 일원이며 부자였다. 주님의 십자가 죽이는 것을 반대할 정도로 주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서 은회하였다고 한다.(38) 어린아이와 같은 면을 보인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히자 담력을 얻어 주님의 장례식을 도맡았다. 자 기의 체면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달라했다. 주님의 십자 가를 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받는다.

하나님은 은말한 중에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봉사자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엘리야 시대의 조용한 7000명처럼 이시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 나 준비되어있음을 알자.

둘째, 니고데모: 요셉과 신분이 비슷한 그는 일찌기 주님을 찾아 온 율법학 자이며 바리새인이었다. 주님으로부터 중생의 도리의 말씀을 듣고 의 아해 했던 그였다 요한복음7:51절에서 장막절기간에 주님을 옹호하는 그의 태도를 본다. 그리고 나서 몇년 후에 십자가 아래의 시체를 장사 하는 봉사자로 나타난다. 그는 말씀을 듣고 3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열매를 맺는 본보기다.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숨은 일 꾀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능력있는 하나 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함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한다.

세째, 여인들: 본문에 나오지 않으나 주님의 장례식을 지켜본 그의 죽음의 증인들이 있었다.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 온 일부의 여인들이었다. (눅23:55-56) 수산나, 요안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받은 여인들 이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 가냘픈 여인들의 심지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 의 대업을 이루어 가셨다. 주님의 장례식에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일꾼 들은 모두 은밀한 가운데 준비된 인물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들이다.

7. Hidden workers of the kingdom of God (John 19:38-42) 1994.3.20

The certainty of Jesus' death is further evidenced by the event of his burial. His burial is the burial of Christians' sins, guilt, and all curses and punishments. In this important event, we see God's hidden ministers.

First, Joseph of Arimathea: He was a disciple of the Lord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He was a member of the Sanhedrin Council and was wealthy. He was a man who stood on the Lord's side to the extent of opposing the Lord's death on the cross. However, it is said that he hid it because he was afraid of the Jews (38). He shows a childlike side. When such a person encountered the Lord's cross, he gained courage and took charge of the Lord's funeral. Despite his reputation, he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his body. Anyone who correctly understands the cross of the Lord is transformed. God has prepared servants who will work for his kingdom as he said. Let us know

that like the quiet 7,000 people in Elijah's time, the work of God's kingdom is always prepared in this era.

Second, Nicodemus: Similar in status to Joseph, he was a scribe and Pharisee who came to the Lord early on. He was a man who was troubled after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about the doctrine of rebirth. In John 7:51, we see his attitude of defending the Lord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And then, a few years later, he appears as a minister burying the body at the foot of the cross. He is an example of hearing his words and bearing fruit after three years. There are hidden workers around us who hear the Word right away and live by it. Like the Thessalonians, we must live as well-prepared workers of the kingdom of God by loving the Bible, the powerful word of God.

Third, women: Although they do not appear in the text, there were witnesses of the Lord's death who watched his funeral. They were some women who followed the Lord from Galilee. (Luke 23:55-56) Graced women such as Susanna, Joanna, and Mary Magdalene followed the Lord until the end. Through the will of these frail women, the Lord accomplished His great work. The glorious workers used in the Lord's funeral are all prepared in secret. These are the people used by the Father who sees in secret.

8. 성찬의 의미 (눅 22:14-23) 1994.3.27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었다. 그 때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 주 예수님을 깊이 기념하는 행위이다. (19)

그렇게 원하셨던 마지막 유월절잔치에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부탁하셨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사건에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라는 것이다. 이는 주 예수님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여기 “기념한다”는 말은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기억하라는 뜻이다. 공허하고 혼돈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만 살아나며 밝아지며 행복해 진다. 이는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하는 행위이다. (17,19)

주님은 잔과 떡을 가지시고 사례하셨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주님은 사례하셨다. 물론 그의 감사는 우리와는 다르다. 아버지의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신 자로서의 감사였고 장차 나타날 새생명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는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격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유월절이 시작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영원한 보호와 영원한 자유로의 감사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 표한 것으로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다.

세째, 하나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예행식이다. (18,20)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생긴다. 이것은 영원한 잔치를 미리 앞당겨 맛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도주 잔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시는 것이며 또 하나는 천국의 풍요를 내것으로 받아드리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새언약의 피라고 했다. 예레미야과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대로(31:31-34)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벌써 맛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다.

8. The meaning of the Communion (Luke 22:14-23) 1994.3.27

The Lord's entry into Jerusalem led to his death on the cross. What is the meaning of the sacrament that the Lord Himself instituted at that time?

First, it is an act of deeply remembering the Lord Jesus. (19)

At the last Passover feast that He wanted, the Lord asked, "Remember Me." It means focusing our minds on his death and resurrection. For this is the source of all happiness of the Lord Jesus. The word "commemorate" here means to remember it deeply so that it cannot be erased from one's mind. Our empty and confused hearts become alive, bright, and happy only when we focus on Christ. This is because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are hidden within it.

Second, it is an act of gratitude.(17,19)

The Lord took the cup and the bread and gave thanks. The Lord also gave thanks where the miracle of feeding 5,000 people wit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loaves occurred. Of course, his gratitude is different from ours. If we

say that we are thankful as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Father's work of redemption and that we are thankful for the work of new life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then we are moved and thankful that we have been saved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 Exodus from Egypt, where Jehovah's Passover began, was a thanksgiving for eternal protection and eternal freedom. This is a foreshadowing of Christ's salvation, and we are thrilled because we have obtained eternal forgiveness of sins and eternal freedom.

Third, it is a rite of participation in the banquet of the kingdom of God. (18,20)

When we focus on Christ, gratitude arises in our hearts. This is because it is a taste of the eternal feast in advance. So, the wine glass can be seen to have two meanings. One is to drink the death of Christ, and the other is to accept the abundance of heaven as mine.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blood of the new covenant. As Jeremiah and Ezekiel prophesied (Jer 31:31-34), Christ has already given us a taste of the abundant grace of heaven. This is the meaning of the Communion.

9. 복음의 종, 바울 (롬1:1-7) 1994. 4. 30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친 로마서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서신을 쓴 바울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다. 소유권, 생존권, 주권이 전혀 자신에게 없는 노예라는 말이다. 그의 신분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없었던 그에게 이런 고백은 왜 말인가? 그의 다메섹의 회심으로 인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양도하였다는 말이며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였으며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만을 위 해 살아드리는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과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만한 무슨 발견을 했는지 로마서가 말해준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그 분으로 부터 받았다는 사명의식이 있었다. 사도란 말은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란 뜻이다. 성경을 기록하는 도구로서 특별히 선정된 그는 영광스러운 직분의 존엄성을 알고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친히 주신 천직이다. 이런 보배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이다.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다. 온 세상을 상대로 증거해야 할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며 구약에 약속된 것의 성취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것이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일이다. 우리 역시 예수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사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만 한다.

9. Paul, Servant of the Gospel (Romans 1:1-7) April 30, 1994

The book of Romans, which had a valuable influence on many great Christians, deals with the theme of salvation received through faith. Who does Paul, who wrote this letter, introduce himself as?

He said he was a servant of Jesus Christ. This means that they are slaves who have no ownership, right to survive, or sovereignty. Considering his status, he could not be a slave of Jesus Christ, so why should he make such a confession? This change occurred because of his conversion in Damascus. This means that he has handed over everything to the Lord because his master is the Lord. He wants to do the Lord's will, not his own, and he is writing this letter from the position of living only for the Lord, whether he lives or dies. Indeed, the book of Romans tells us what discoveries Paul made that enabled him to become a servant of Christ.

And he had a sense of mission that he had received the office of apostle from Him. The word apostle means one who was sent on a mission. He was specially selected as an instrument to record the Bible, and he knows the dignity of his glorious office and asserts his apostolic authority. Our church duties are not given by man, but are a calling given by the Lord Himself. We must have this sense of treasure.

Paul is the one chosen for the gospel of God. The reason he became a servant of Jesus and an apostle was only for the sake of the gospel. He was chosen for

the gospel to be preached to the whole world. This gospel is the gospel of God prepared by God and is built on the basis of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the fulfillment of what was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so it is something that we must pay close attention to. We must also live with the confidence that we are servants of Jesus Christ and have received a mission for the gospel.

10.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롬1:8-13) 1994.5.1

로마교인들을 만나 보고 싶어하는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5)

튼튼한 신앙이 되게하려는데 있었다. 로마의 핍박과 이교사 상으로
갈피를 못잡는 로마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킴으로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11) 어떤 유혹으로 신앙이 흔들거리기 쉬운가?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주의사상과 쾌락위주의 삶, 그리고 신비주의적 물결이 몰려올 때 복음
으로 확실히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역시 모
든 생활 분야에서 어떤 공격 앞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복음에
의한 삶을 배워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하는 이유는 영적교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함이니라"고 했다. 복음을 바로 알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섬김받는 자가 섬기는 자로, 손해를 보지않으려는 사람이 남의 십자가
까지도 내가 지려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것은 복음때문에 생기는 영적교
제의 힘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진정한 영적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복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제는 오직 하나
님과의 교통을 전제로하고 서로간에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교통인 것이
다.

마지막으로 전파하는 신앙을 얻기위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바울은 견고한 신앙 위에다 평안을 가진 영적교제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선교의 꿈을 안고 지금 편지하는 것이다. 13절에 나오는 열매란 인격의 변화와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 열매가 세계의 심장 부인 로마교인들에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당신은 다시 들어야한다.

10. Reasons to listen to the gospel again (Romans 1:8-13) 1994.5.1

Paul, who wanted to meet the Romanists, had a clear purpose. He wanted to tell them the gospel again. What is the reason? (15)

He was trying to build a strong faith. I am writing this letter to help Romanists who are confused by Roman persecution and paganism to become people of solid faith by confirming the power of the gospel.

(11) What temptations make it easy for one's faith to be shaken? When the materialistic ideology that money is everything, the pleasure-oriented life, and the wave of mysticism come, if you are not firmly armed with the gospel, you will easily collapse. We too must learn to live according to the gospel in order not to be shaken by any attack in all areas of life.

And the reason Paul wants to preach the gospel again is to ensure that spiritual fellowship truly takes place. In verse 12, he says, "So that we may benefit each other through our faith." It is true that if you know the gospel correctly, you will be transformed into a truly attractive person. Egoism turns

into altruism, and the person who is served turns into a person who serves, and the person who does not want to suffer a loss turns into a person who is willing to carry even the cross of others. This is due to the power of spiritual fellowship that arises because of the gospel. We need to confirm the gospel again in order to achieve the true spiritual fellowship that existed in the early church. This fellowship is based solely on the premise of fellowship with God and is a fellowship of sharing the grace of the gospel with one another.

Lastly, we must listen to the gospel again to gain the faith it preaches. Paul is writing this letter with a missionary dream of evangelizing the whole world by becoming one through the power of peaceful spiritual fellowship based on solid faith. The fruit mentioned in verse 13 refers to the flourishing of character and saving the soul. It is natural to hope that this fruit will be revealed to the Romanists, the heart of the world. Because this gospel is more precious than our lives. You must hear this gospel again.

11. 기독교의 효도관 (엡6:1-3) 1994. 5.8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된다. 부모효도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킬 때 모든 것에 질서가 세워지기에 바울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말한다.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했다. 주안이란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이다. 부모지상주의적인 효도관을 우리는 반대한다. 부모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처럼 섬기는 것은 우롱하는 처사가 된다. 주안에서 효도하라는 이유는 그것이 영혼구원위주의 효도관이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최대의 효도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잘 해 드려도 그의 사후의 영원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공경과 순종하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모님을 부모대접해 주기위하여 먼저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다. 부모는 자신 의 영적권위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들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하나님인 줄 알고 주안에서 순종하고 받들어 섬겨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 는 법을 익혀 실천해야 한다.

주안에서의 효도는 거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는 말씀이다. 바울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롯은 이방여인이었지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김으로 일곱 아들보다 나은 자부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의 장례는 잘되고 장수하였다.

기독교의 효도관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주안에서 공경함으로 이런 복된 자리로 나아가자.

11. Christian view of filial piety (Ephesians 6:1-3) 1994. 5.8

The command to honor your parents is the foundation of Christian ethics.

When we keep the commandments about filial piety to parents, order is established in everything, so Paul tells us how to put it into practice.

He told us to be filial in the Lord. The word Lord means to obey your parent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Lord. We are opposed to the parental supremacy view of filial piety. Parents are still sinners who need to be saved before God. So, worshiping him as if he were God would be mocking him. The reason to be filial in the Lord is because it is a view of filial piety centered on soul salvation. The greatest filial piety to a parent would be to help him or her to believe in Christ. No matter how well you do, if you spend eternity in hell after death, what could be more miserable than this?

And he told us to respect and obey. What does this mean? In order to treat your parents like parents, you must first obey them. And it means acknowledging spiritual authority. Parents must live a life blessed through prayer and the Word so that they can exercise their spiritual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Lord. Children must recognize that he is the God of the family that God has established, and must obey and serve him in the Lord.

Specifically, we must learn and practice how to be filial to our parents.

Filial piety in the Lord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passed by for nothing.

These are words that definitely have results. Paul exhorts us not to hold on to the promise of prosperity and long life on earth. Although Ruth was a foreign woman, she served her mother-in-law Naomi well, so she was evaluated as a better daughter-in-law than her seven sons, and her future was prosperous and she lived a long life.

The Christian view of filial piety promises such clear and certain blessings.

Let us all advance to this blessed position by honoring our parents in the Lord.

12. 하나님의 축복의 손 (창26:12-22) 1994.5.18

이삭은 어떻게 억울한 일을 해결했는가?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랄 땅에서 강성하자 거기서 쫓겨났고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자 곧 탈취를 당했다(16,20)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먼저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보자!

첫째, 백배의 소출이 그 증거다. (12) 그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백 배나 얻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십일조생활에서 부터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생활 그리고 복음전파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증거는 창대하고 왕성했다는 사실을 보아알 수 있다. (14-15) 양과 소와 노비가 많았다고 한다. 숫자가 많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을 믿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려는 열심이 있어야 할 줄 믿는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비록 사람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증거로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아비멜렉의 시기, 그랄 목자들의 시기로 안식처도 빼앗기고 노력의 열매도 빼앗겼다.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는 잠잠하거나 멀리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더 큰 영적축복을 소유케하려고 그를 연단시키는 것이었다. 침묵하심으로 훈련시키셨다. 이삭은 이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드렸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는 대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를 거부가 되게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영적 거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양보하는 법을 배우자! 바로 그 것이 나를 복되게하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다.

12. God's hand of blessing (Genesis 26:12-22) 1994.5.18

How did Isaac resolve an unfair situation? There we can learn the wisdom of Christian life. When he became strong in the land of Gerar, he was driven out from there, and as soon as he dug a well in the Gerar Valley, he was taken over (16,20). What was Isaac like at this time?

First, let's look at the evidence of God's blessing on Isaac!

First, the hundredfold yield is the proof. (12) It is said that he farmed that year and gained a hundred times as much. The Christian view of materiality begins with the fact that God is the owner of all material things. It is very important to live a life of tithing, live everything I own in accordance with the Lord's will, and make plans to spread the gospel.

The second evidence can be seen in the fact that it was large and prosperous. (14-15) It is said that there were many sheep, cattle, and slaves. Increasing in number is also a blessing from God. I believe that Christians should believe in

the fact that God has promised this blessing of prosperity and be zealous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believe in Christ through me. We must have faith to cherish God's blessings. Even though we are only human, what we do in the name of the Lord is bound to have the authority of the Lord.

The final proof is that he experienced God's hand of protection when he was faced with something unfair. Due to the jealousy of Abimelech and the jealousy of the shepherds of Gerar, they were robbed of their resting place and the fruits of their efforts. Where is the God who blessed Isaac? He is not silent or distant. God was refining him so that he could have greater spiritual blessings. He trained us in silence. Isaac accepted this injustice with faith. The Lord's words that the meek will inherit the earth applied to him. He did not resist, but waited for God's guiding hand. God, who finally made him a reject, finally made him a spiritual reject. Like Isaac, let us learn how to yield in faith when we are faced with something unfair! Because that is the hand of God that blesses me.

13.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다 (롬1:14-17)1994.5.228

바울이 늘 가졌던 복음에 빛진 자라는 부채의식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이유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놀라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 감격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다. 왜 이런 감격이 생기는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순수한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옥함을 깨뜨린 여인의 감격스러운 봉사가 용서받은 사실때문에 일어나것 처 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사함받은 이 구원의 감격때문에 모든 삶들에게 내가 빛진자 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이다.

책임을 느낀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엘리사시대의 문둥 이가 느낀 부담처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 특권을 가 지고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자기 형제들의 영혼구원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더욱 더 영혼구

-령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우리는 이 세상 을 바라볼 때 너무나 큰 책임을 느껴야한다. 자기 문제까 지도 남에게 의존하고 요리조리 피하려는 이 세상에서 우 리는 남의 문제까지도 책임지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 금이라는 영적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만 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위력을 맛본 증거이기 때문이다. (16

-17)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의 위력을 깨닫은 자로서 전혀 소 망이 없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만 한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13. You are indebted to everyone (Romans 1:14-17) 1994.5.228

We must have the sense of debt that Paul always had, that we are indebted to the gospel. Why?

This consciousness must be present because there is an amazing experience of being saved. Because of the thrill of meeting Christ and being saved, Paul wanted to spread this gospel to everyone. Why does this emotion arise? It is because of the fact that I, who could not be saved, was saved through the pure merits of the Lord. Just as the touching service of the woman who broke the alabaster box occurred because of the fact that she had been forgiven, Christians have the consciousness of being indebted to all of life because of the thrill of salvation through forgiveness of their sins.

This is because it is evidence that he feels responsible. Like the burden felt by the leper in Elisha's time, Christians must share this privilege of being saved with their neighbors. If the rich man in her hell thought of saving the souls of her brothers and sisters, much more should we save their souls.

-It is natural to consider the spirit. We must feel such great responsibility as we look at this world. In this world where we depend on others and avoid solving even our own problems, we have to live with the spiritual burden of being the debt of the world and the salt of the earth, taking responsibility for even the problems of others.

This is because it is evidence of finally experiencing the power of the gospel.
(16

-17) Christians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who have realized the power of this gospel with a heart-pounding sense of salvation, must spread this gospel to those who have no hope. Because this is the best way to live life.

14.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롬1:18-25) 1994.5.29

로마교인들에게 문안인사와 방문 목적을 말한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두려운 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선언이다. (18) 왜 바울은 이런 말로 복음을 시작했는가? 진정한 복음은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임하는 이유는 진리를 막기 때문이다. 비오는 날의 벼락처럼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진리를 역행할 때 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막는 죄란 무엇인가? 18절에는 두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불경건이다. 경외심을 상실할 때 모든죄가 시작된다. 예배를 무시하거나 무모적인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 하신다. 그리고 배은망덕의 죄 때문에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배은 망덕은 이렇게 두려운 일이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생활의 회복을 힘써야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진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인간의 진노도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심판은 공의 와 진실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심판일 수 있겠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서운 불 심판을 많이 본다. 소돔고모라의 멸망이나 고라자손의 멸망과 같은 그런 두려운 심판을 본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천재지변이나 인간문제로 인한 사건을 우연으로 보 아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길이 그 속에 포함된 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것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이 진노를 피할 수있는가? 오직 도피성되 신 주님에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그 만이 진정한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도피성에 피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삶을
영위하자!

14. The inevitable wrath of God (Romans 1:18-25) 1994.5.29

After greeting the Roman believers and explaining the purpose of his visit, Paul begins the main body of Romans with a fearful note. It is a declaration that God's wrath will surely come upon sinners. (18) Why did Paul begin the gospel with these words? This is because the true gospel begins with the realization of sin. The reason God's wrath comes upon sinners is because they block the truth. Like lightning on a rainy day, God's anger is bound to come when things go against the truth. So what is the sin that blocks this truth? Verse 18 points out two things. One is ungodliness. All sin begins when fear is lost. When we ignore worship or lead a reckless life, God will surely be angry. And he comes because of the sin of ingratitude. This means that although he received revelation from God and knew God, he did not glorify God and was not thankful, and furthermore, he became a person who served idols instead of God. Ingratitude toward God is such a terrible thing. On the contrary, we can avoid this wrath only by truly worshiping God and striving to restore a life of gratitude to Him.

Then where does this wrath come from? They said it came from God. The wrath of humans is also fearful, but the wrath of God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Why? This is because the judgment is a judgment of justice and truth. And this is because it may be a judgment that will never be given again. In the Bible, we see many scary fiery judgments. We see such fearful judgment as the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 or the destruction of the descendants of Korah. Even now, we should not view natural disasters around us or events caused by human problems as coincidences. We must fear God, knowing that His wrathful hand is included in it.

Then, when the wrath of God remains on sinners, how can humans escape this wrath? There is only one way to go to the Lord, the city of refuge. Because he alone is the true refuge and refuge. As those who escaped to the city of refuge, let us lead a life that praises God and gives thanks to Him!

15. 신자안에 있는 영적싸움(롬7:14-27) 1994.10.16

그리스도인이 신령하게 살려고하면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 진다. 이 영적싸움에서 승리자로 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한 바울을 통해 그 대답을 들 어보자!

14절에 보면 참 나와 부패한 나의 싸움을 말한다.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본다. 이것은 우리 속의 부패한 육의 세력에 거듭난 나의 마음이 사로 잡히는 처지를 말한다. 우리는 참 나를 사랑해야 되며 동시에 부패한 나를 미워해야 한다. 영이냐 육이냐, 성령의 소욕인가. 육체의 소욕 인가에 대한 싸움에 바른 선택을 해야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속에 두가지 법이 작용하는 것을 탄식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는 죄의 법을 따름으로 곤고한자요 사망의 열매를 맛보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보면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엉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맛보고 있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때 육에 속한 자가 되어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곤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역 시 주 예수님 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이미 우리 속의 부패성은 그 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롬6:6)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좁은 길을 걷는 것뿐이다. 넘어질때의 해방 역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뿐이다. 그리고 계속 이 승리를 유지하는 길도 주님의 길을 걷는 길 뿐이다. 이 승리가 성령을 따름으로 함께하기를 바란다.

15. Spiritual battle within believers (Romans 7:14-27) 1994.10.16

If a Christian tries to live spiritually, the spiritual battle becomes more intense. What can we do to remain victors in this spiritual battle? Let's hear the answer from Paul, who had the same experience as us!

Verse 14 talks about the battle between the true me and the corrupt me.

Even Christians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find themselves committing unwanted sins because their hearts are willing but their flesh is weak. This refers to a situation where my reborn heart is captured by the corrupt forces of the flesh within us. We must love the true self and at the same time hate the corrupted self. Is it the spirit or the flesh, or is it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 We must make the right choice in the fight over the approval of the flesh's desires.

So Paul lamented that two laws were at work within him. By following the law of God in his heart and the law of sin in his flesh, he saw himself as a miserable person and tasting the fruit of death. He was a slave to sin and the devil, and was experiencing a life that was bearing the wrong fruit. "O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death?" At this time, for Christians who become fleshly and temporarily suffer, the only

way to escape from this suffering is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only answer to this problem. The corruption within us has already died on the cross with Christ (Romans 6:6). Acknowledging this fact, we can move forward with gratitude.

The path to victory for Christians is to walk the narrow path taught by the Lord. Liberation from falling comes only from following the path of the Lord. And the only way to maintain this victory is to walk the path of the Lord. I hope this victory comes with following the Holy Spirit.

16. 하나님 진노의 증거 (롬1:26-32) 1994.6.5

불경건과 배은망덕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 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바울은 말해준다.

소극적인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 21-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진 노의 증거라고 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 지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짐으로 우둔한 마음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바로 마음의 어두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쁨이 없어진다. 바로 이것이 진노의 증거인 것이다.

적극적인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 26절이하 에 보면 세가지 증거로 정리된다.

몸을 욕되게 함으로 몸의 노예가 되게 했다. (24) 26 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로 음란의 죄악이 급증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신적 종교적 육 체적으로도 음란한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인간의 몸이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중심함으로 짐승화 되어간다. 이것이 진노의 증표인 것이다.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진노의 증거이다. 26-27절에 보면 방관함으로 부끄러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었다. 인간에게 있는 좋은 욕망들이 인간을 지배함으로 정욕의 도구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할 때 정욕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는 인생을 살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귀의 노예가되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이다. (28-31) 여기에는 21가지의 죄악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섯으로 정리할 수 있다. 탐욕주의자요, 살인자요, 음해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반역하는 자가 바로 이것이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인생은 이렇게 몸의 노예, 정욕의 노예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노 아래 있는 자였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16. Evidence of God's wrath (Romans 1:26-32) 1994.6.5

God's judgment for the sins of ungodliness and ingratitude is not future, but realistic. Paul's argument is that we can see serious evidence of God's wrath around us. Paul talks about the passive side and the positive side.

Where does negative evidence appear? In verses 21-22, it is said that the darkening of the heart due to God's abandonment is evidence of wrath. He said that he lost his sense of gratitude towards God and instead of being glorified, his thoughts were vain and he became a burden and foolish heart. It all starts from the darkness of the heart. When we commit sin in our real lives, our hearts become frustrated and there is no joy. This is the evidence of wrath.

Where does the positive evidence appear? Verse 26 and below are summarized in three pieces of evidence.

By dishonoring the body, it became a slave to the body. (24) Verse 26 says that the sin of sexual immorality will increase rapidly as evidence of God's wrath. A life that departs from God commits the sin of obscenity both mentally and religiously and physically. The human body, which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of God, is becoming a beast because it does not follow the will of the Holy Spirit and focuses on the flesh. This is a sign of wrath.

Being a slave to lust is evidence of wrath. 26

In verse 27, we see that through neglect, we fell into shameful desires. The good desires that exist in humans dominate humans and have become tools of lust. When we do not follow the desires of the Holy Spirit, we become slaves to our passions and have no choice but to live a wandering life.

- Becoming a slave of the devil and making one do unworthy things is evidence of God's wrath. (28-31) There are 21 types of sins listed here, which can be organized into five. These are the greedy, the murderers, the slanderers, the proud, and the traitors. Being a tool of the devil is itself evidence of being under the wrath of God. Due to God's abandonment, life becomes a slave to the body, a slave to the prison, and a slave to the devil, and the evidence of God's wrath is actually revealed. We were under this wrath, but we are saved through the merits of the Lord's cross.

17.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 (롬2:1-11) 1994.6.12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교훈이 그들 생활의 좌우명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지침이다. 특권이란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며(2) 보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 갇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우 하시나? 각사람에게 보우하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심판이다. 개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표준대로 보우하신다. 진리란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펼쳐지는 책이다. 이 책에 의해 두부류로 나누어진다.

한부류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여 영생에 이르는 부류이고(7) 그 다음 부류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와 악을 따라 노와 분 그리고 환난과 곤고가 따르는 부류이다. 이런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구원받은 자라 하여 방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자처럼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인가? 그들은 두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남의 죄를 판단하고 은 일을 행하는 죄였다. 우리는 남의 죄를 보고서 자기를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실로암망대가 무너지거나 불의의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한 죄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납되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힘써야 할 것이다.

17. You who judge others! (Romans 2:1-11) 1994.6.12

The lesson that the Israelites who entered Canaan came by God's grace is an important guideline that Christians should not forget, just as it became the motto of their lives. Because of our privilege, we must work out 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The God the Jews believed in is a God who judges according to the truth (2) and punishes. (6) How does the God who repays repay? He said that he would repay each person. It is a specific judgment. It is God who questions every thought in an individual's heart. And He reward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ruth. What is truth?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This is a book that unfolds before the final judgment seat. This book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or those who persevere in doing good and seek glory, honor, and immortality, eternal life is given to one group (7). But to the next group, those who do not pursue the truth and follow unrighteousness and evil will be subject to anger, anger, tribulation, and distress. He said he would follow. This God is my God. Even though you are saved, you must not let down your guard and live as if you are being judged by God.

So what is the sin of the Jews that Paul points out?

They are organized into two categories. One was the sin of judging the sins of others and doing the same. We must have the wisdom to examine ourselves by looking at the sins of others. It means that we must see our sins by looking at today's images of the Tower of Siloam collapsing or people being killed in an unjust incident. The other was the sin of despising the kindness of God. The Jews did not know that they were accepted because of God's love. Therefore, Jews, like Gentiles, can never escape God's wrath.

We Christians who say we have already been saved should continue to strive to follow God with a humble heart so as not to make the mistakes of the Jews.

18. 외식의 가면을 벗어라 ! (롬2:12-24) 1994.6.19

외식의 죄란 모든 죄악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유대인의 죄 가운데 외식주의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 여준다.

* 외식의 죄란 무엇인가? (12-15) 속과 겉이 전혀 다른 이 중인격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13절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하 고 행하지 않는 죄라고 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 는 믿음이 바로 외식의 죄라고 말할 수 있다. 율법을 가진 이 놀라운 특권을 저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성경 에서 말하는 거짓믿음, 일시적믿음, 기적적믿음, 역사적믿음은 모두다 외식과 통한다. 참 구원의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박 고 그 위에서 새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외식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 23,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인생의 근본 목적이 이것인데 이일을 하지 못하 게 하기에 외식이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다. 이방인의 죄와 다를 바가 없이 되었다. 그리 고 이 외식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 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날에 율법에 따라 양심에 따 라 각각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 께서 비리새인들에게 수없이 말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 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 지옥의 판결을 반드시 받는다고 하셨다.

그러면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17-20절에 보인대로 유대인들이 받은 지위는 세상의 표준이요 중심이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위치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거기서 듣는 것을 목표로 삼아선 안되고 행위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 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 써야 만 한다.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없음으로 바람같은 선지자란 책망을 받은 것 같은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 거기에서 나오는 영력으로만 살아가여만 할것이다.

18. Take off the mask of eating out! (Romans 2:12-24) 1994.6.19

The sin of hypocrisy can be said to be the hotbed of all sins. Paul shows us the miserable state of hypocrisy among the Jewish sins.

What is the sin of eating out? (12-15) This refers to this personal appearance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inside. In verse 13, it is said that it is a sin to only hear the law and not do it. As James said, it can be said that faith without action is the sin of hypocrisy. They do not appreciate this amazing privilege of having the law, and on the contrary, they fail to step into the position of true saving faith. False faith, temporary faith, miraculous faith, and historical faith mentioned in the Bible are all related to hypocrisy. True saving faith refers to a life rooted in the Word and continuing to live a new life upon it.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the sin of hypocrisy? Verses 23 and 24 show that this results in overshadowing God's glory and dishonoring Him. This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life, and because it prevents us from doing this,

hypocrisy is a terrible sin that causes us to lose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It became no different from the sins of the Gentiles. And this sin of hypocrisy is sure to be judged by God. It is said that on the day when God reveals secrets, each person will be judged according to the law and according to his or her conscience. How terrible is the rebuke to hypocrites that our Lord spoke countless times to the virtuous people in Matthew 23? He said that he would definitely be sentenced to hell.

So what is the way to get out of this eating out situation?

As seen in verses 17-20, the status given to the Jews is that of being the standard and center of the world and the source of blessings. Christians are more stuck in one position. We can escape from eating out when we do not aim at listening, but when we aim at leading to action. And I must always strive to be close to the Word of God so that my soul is filled with it. In order to avoid going to a place where you feel like you are being rebuked as a prophet like the wind due to the absence of the words of the prophets of Jeremiah's time, you must be deeply rooted in the Word and live only with the spiritual power that comes from it.

19.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롬2:26-29) 1994.6.26

할례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증표로서 성결과 화목을 이루는 사명을 띠는 것이다. 이 할례는 세례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

할례가 본래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25-27절에는 할례를 준 목적이 율법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율법의 내면에 흐르는 의와 인과 신, 다시 말하면 성결과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는 확증으로 새겨준 것이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세례에서 완성된다. (마 23:23, 12:14) 세례는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 속에 성결과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되게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28-29절은 세가지를 지적한다.

(1)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28) 유대인과 히브리인이란 말은 찬양하기 위해 구별된 민족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들은 성결을 탐욕을 가리는 방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데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2) 신령으로 된 할례여야 한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고 성령세례를 받음을 가리킨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마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3)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람 앞에서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중요하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다.

모세의 지팡이로 르비딤의 기적은 일어났으나 그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원의 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결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이다.

19. Circumcision is of the heart (Romans 2:26-29) 1994.6.26

Circumcision is a sign of a covenant with God and has the mission of achieving holiness and reconciliation. This circumcision was completed with baptism. Let us consider its true meaning.

What is the original purpose of circumcision? Verses 25-27 say that the purpose of circumcision was to carry out the law. Doing the law is engraved as a confirmation of the righteousness, benevolence, and spirit that flows within the law, that is, the one who creates holiness and harmony. This purpose is fulfilled in Christian baptism. (Matthew 23:23, 12:14) It can be said that baptism is intended to create sanctification and harmony in our lives after salvation.

So,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circumcision, verses 28-29 point out three things.

(1) You must circumcise your heart (28) The words Jews and Hebrews mean a people set apart for praise. But they made holiness a way to cover up greed.

That is why circumcision of the heart was necessary. You must cut off the skin of your heart and become a person who serves the Lord with a broken heart. In order to complete the law, one must have this kind of heart.

(2) It must be spiritual circumcision. These words refer to being rebor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receiv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Only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can one be born again, and only through the Holy Spirit can one come directly before God and worship. A heart with life must be composed only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3) We must be acknowledged before God. What is important is not recognition before people, but recognition before God. Only those who ar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can live right before God.

The miracle of Rephidim occurred with the rod of Moses, but when he broke the word of God in his small part, he could not enter Canaan. We who live in the great age of salvation are those who have been circumcised in heart to achieve holiness and reconciliation and are chosen to carry out that mission.

20.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롬3:1-8) 1994.7.33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더 풍성하게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진리를 발견한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울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 이나마 보였던 것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걸어 다니는 성경처럼 화평과 성결을 나타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풍성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3-8)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었다. (3-4)

요셉은 형님들의 거짓으로 일시적인 실패를 한 것 같았으나 마침내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분명히 드러났고 요셉이 받은 사명은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었다. (5-6)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아니라는 것이다.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심판받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 분명히 드러냈을 뿐이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었다. (7-8)

가롯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자가 아니고 제 갈길로 간자였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것은 그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악을 선택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주인되심을 밝히 들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다.

20. **Our God who never fails** (Romans 3:1-8) 1994.7.33

The Jews' failure had no effect on God's salvation history. On the contrary, it became an opportunity to further fulfill God's plan. We discover two truths here.

The privileges Christians received were truly great gifts from God. What are the privileges of the Jews? They were a people who were chosen by God, served God closely, and experienced many amazing miracles of God. Above all, they were a people who received revelation from God. In verses 1-2, it is said that he is "one who is entrusted with the word of God." Is there anything as blessed as this? God called Israel as a mirror to show himself.

Abraham, Isaac, Jacob, and David all showed the image of God, even if only partially. The early church in the Book of Acts was praised by people for showing the image of God and displayed peace and holiness like a walking Bible.

Every failure of Christians will result in abundant victory under the hand of God. (3-8)

Their failure revealed God's faithfulness. (3-4)

Joseph seemed to have suffered a temporary failure due to his brothers' lies, but he ultimately triumphed. God's faithfulness was revealed more clearly, and the mission Joseph received was revealed more clearly.

Their failure revealed God's justice. (5-6) Is the wrathful God unrighteous? That is not true. The Egyptian army only revealed God's justice more clearly by being judged at the Red Sea. The suffering of the cross provided an opportunity to clearly reveal the love of Christ and the justice of God.

Their failure revealed God's sovereignty. (7-8)

Judas Iscariot was not a contributor to God's salvation, but was a man who went his own way. The idea of doing evil in order to do good is because the responsibility for the sin lies not with God but with humans. This is because it is God, not humans, who uses evil for good. In this way, the failure of the Jews was not God's failure, but an opportunity to clearly reveal God's truth, righteousness, and mastery.

21. 의인은 없다 (롬3:9-20) 1994.7.10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바울은 결론적으로 해아래서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정리한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란 존재다. 얼마 나 부패했는가?

집합적으로 볼 때 의인이란 없다. 성경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도 그 자신에게서 나온 의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의일 뿐이다. 그러나 유일한 의인이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깨닫는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두 치우쳐 무익한 일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인의 모임이다. 두 세사람의 의인이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의인이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다. 교회는 주님의 의인의 모임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말로 다할 수 없이 썩어 버렸다. 언어생활이 부패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거짓이 능란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다.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부패하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달리는 길이 파멸과 고생 구덩이를 달리는 것이 인생이다. 왜 이런 부패가 일어날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날 우리시대는 도덕적 표준과 삶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전이된 시대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수가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하고 "주여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겸손히 서야 되겠다.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의 소망이 생긴다.

21. There is no one righteous (Romans 3:9-20) 1994.7.10

Paul, who proved that both Gentiles and Jews are sinners before God, concludes that all humans under the sun are sinners. Corruption is what humans are. How corrupt is it?

Collectively, there is no such thing as righteousness. Looking at Biblical history, are there righteous people before God? Abraham, Isaac Jacob, and Moses David never had any righteousness that came from themselves. It is nothing but righteousness given by the grace of God. But there is only one righteous one, and that is our Lord Jesus Christ. Paul said that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no one who does good, but all are turned aside and toil for useless things. What God requires is a gathering of righteous people. The Lord's promise is that when two or three righteous people gather together to pray, and when righteous people do something, an amazing effect will definitely occur. The church is a group of people who live as a gathering of the Lord's righteous people.

Even from a personal perspective, it has rotted beyond words. Language life has become corrupted. It is said that the throat is like an open tomb, the tongue is fluent in lies, the lips are poisonous from vipers, and the mouth is full of curses and evil venom. And they are also corrupt in their actions. Life is a life where your feet bleed and the path you run is fast and through pits of destruction and suffering. Why does this corruption happen? In short, it is

because there is no fear of God. Today, our era is one in which moral standards and life values have been fundamentally shaken and metastasized. Here, we must acknowledge the fact that we are thorough sinners who cannot stand before God and say, “Lord, I must admit that I am a sinner who cannot be saved without Your help and stand humbly. At that time, there is hope for salvation.”

22. 오직 예수 안에서 (롬3:21-26) 1994.7.24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소유하는 일은 인간의 근본 문제다. 바울은 율법행위로 얻는 의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대조하면서 의를 소유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다.

1. 이 의는 구약의 증거를 받아 온것이다.

롬 1:2에서도 바울은 복음이 바로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 이라고 말한대로 여기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 이었다고 한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 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창3: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씨, 야곱의 별, 다윗의 자손, 고난의 종으로 예언된 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대로 완성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보 여줌과 동시에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본다. 이런 구원의 든든 함을 깨달은 바울은 큰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만세부터 감춰어 온 비밀을 안 사람은 이런 감격이 있게 마련이다.

2.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23-26)

23-26절에서 바울은 이 의를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 만이 그 해답이 다. 오직 예수 안에서 만이 의를 회복할 수 있다.

하말티아(죄)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에 적중하지 못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자격미달이란 말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의의 자리에 이르기에 불능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이란 말은 노예를 돈주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일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므로 그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요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받게하는 유일한 시은죄가 되었다. (25)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로지 주 예수님에게만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있기 때문이다.

22. **Only in Jesus** (Romans 3:21-26) 1994.7.24

Possessing righteousness before God is the fundamental problem of humanity. Paul presents the only way to possess righteousness by contrasting the righteousness obtained through the works of the law with the righteousness obtained through faith in the gospel.

1. This righteousness has received the evidence of the Old Testament.

Just as Paul said in Romans 1:2 that the gospel received the testimony of the Old Testament, it is also said here that he received the testimony of the law and the prophets. Abraham and David were not saved by following the law, but by faith. What was prophesied in Genesis 3:15, starting with the woman's descendants, becoming Abraham's seed, Jacob's star, David's descendant, and the suffering servant, was fulfilled in Christ. Therefore, we see that the law shows the level of God's righteousness and at the same time points to the fact that we are saved by faith in Christ, not by works. Paul, who realized the assurance of this salvation, praised the Lord with great emotion.

People who know a secret that has been hidden for ages are bound to feel this kind of emotion.

2. This righteousness is obtain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23-26)

In verses 23-26, Paul says that the only way to possess this righteousness is in Jesus. Jesus is the only answer. Only in Jesus can righteousness be restored.

There is a word called hamaltia (sin). This refers to everything that fails to hit God's goal. It means unqualified.

Humans have become incapable of reaching God's position of righteousness. So he redeemed us by Christ dying in our place. This word, redemption, refers to buying a slave with money and setting him free. Christ paid the price to give us freedom. Therefore, he became the only propitiation and the only mercy sin to receive the grace of God's righteousness. (25) We must come only to the Lord Jesus to receive that grace. Because all problems are solved there.

23. 구약선진들과 같은 믿음(롬4:1-17) 1994.7.31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바울은 구약 의 대표적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실례로 들어설명한 다.

1.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 그는 바울당시 2000년전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머리이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복의 근원 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순종으로 따르던 그였지만우 리와 성정이같은 사람에 불과했다. 거짓이 있었고 실수가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할례를 제정하심으로 그 의를 인치셨다. 신약적 표현을 빌린다면 물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세례를 받아야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믿은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2. 다윗의 구원

다윗 역시 아브라함 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은 구약의 인물 이다. 그는 4-8절에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받은 사실을감 격스럽게 말한다. 그 역시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 는자로 알면 곤란하다. 그는 어릴 때 믿음이 있었지만 죄가 없는 자란 말이 아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우리아 장군 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과 살인 죄로 말미암아 철저한 진토 속에 떨어졌었다. 그런 다음 그 역시 자기의 엄청난 죄를 씻는 길은

우슬초박에 없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 역시 믿음 으로 이 행복을 소유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믿음과 동질의 것이어야 한다. 흉내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확고한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자!

23. The same faith as the Old Testament ancestors (Romans 4:1-17)

1994.7.31

Paul explains the righteousness gained only through faith in Jesus, using Abraham and David, representative figures of the Old Testament, as examples.

1. Abraham's salvation

Who is Abraham? He was 2,000 years ago at the time of Paul and is the head of Israel. When God called him, he promised that he would be a source of blessing. Although he was someone we followed obediently, he was just a person with the same disposition as us. There were lies and many mistakes. But God justified him. And he sealed him by instituting circumcision. To borrow a New Testament expression, it would be like having to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before being bathed in water. Abraham's faith was that he knew that he was a sinner, repented, and gained that faith through faith in God and the power of God's Holy Spirit.

2. David's salvation

Dower, like Abraham, is also an Old Testament figure who gained righteousness through faith. In verses 4-8, he speaks with great emotion about the fact that his sins were forgiven through faith. It would be difficult to know

that he, too, is qualified to possess this righteousness. He had faith as a child, but that does not mean he was without sin. Even after becoming king, he fell into complete turmoil due to the sins of adultery and murder of General Uriah's wife. Then he also said that hyssop was the only way to wash away his great sin. He too possesses this happiness by faith.

Our salvation must be the same as the faith that Abraham and Dawet had.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achieved by imitation. Let us build our lives on this firm faith!

24.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롬4:17-25) 1994.8.7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의는 그 내용이 더 아름답다.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지킬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기 때 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이다. (17-18) 죽은자 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며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였다. 백부장처럼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은 것이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다. (19-21) 여호와 라는 그의 호칭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다.

그는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 지지 않았고 (강한 믿음) 약속을 의심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 다. 구원하는 믿음은 다 이루어 놓았다고 큰 소리치는 것 이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진실하심을 언제나 사모하 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면 이 귀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 드리고 믿을 때 구원이 성립 되며 절대헌신과 자기부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가진 동질의 신앙 전능성과 신실성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한다.

24. **Faith is a gift from God** (Romans 4:17-25) 1994.8.7

The righteousness Abraham gained through faith is more beautiful in its content.

This is because the ability to keep the righteousness, mercy, and spirit of the law comes from faith.

So what was Abraham's faith? First, his faith is faith in the omnipotence of God. (17-18) He was the Lord who had the power to raise the dead, and was the faith to hope for things that are not, and to hope for things that cannot be hoped for. Like the centurion, he believed that the Lord had the power to solve all real-life problems.

Second, he believed in God's faithfulness. (19-21) His title Jehovah means that he faithfully keeps his promises.

Even after learning that he had died, his faith did not weaken (strong faith) and he did not doubt his promise, but instead gave glory to God. Saving faith is not a loud declaration that everything has been accomplished, but a form of faith that always longs for God's omnipotence and truth.

So how can we have this precious faith?

This faith does not come from us, but only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hen we accept and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salvation is established and we move to a position of absolute devotion and self-denial. Anyone who has the same faith as Abraham must become someone who believes in the same faith, omnipotence, and faithfulness that Abraham had.

25.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자! (롬 5:1-5) 1994.8.14.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에스겔의 환상의 바다와 같은 넘치는 축복이 약속되었다. (겔47:) 본 문에서는 이 넘치는 3단계의 축복을 말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다. (1)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안에서 화목관계로 바뀌어진 기본관계를 말한다. (1) 이것은 법적으로 확고한 관계이기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롬8:38-39)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관계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단계이다. 기본 관계가 정리된 사람은 날마다 그분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경험의 생김다.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 었던 것이다." (2상)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 갈때 놀라운 일을 맛본다. 즐거울 때는 찬송함으로 문제 가 있을 때는 기도함으로 죄를 범할 때는 고백함으로 나 아가자 !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단계이다. 이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환난 중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 ? 결과는 반드시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

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영광스러 운 일을 맛보기 위하여 주안에 마련된 은혜의 바다,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자!

25. Let's go to the sea of grace! (Romans 5:1-5) 1994.8.14.

Christians who are justified by faith are promised abundant blessings like the sea of Ezekiel's fantasy. (Ezekiel 47:) This passage speaks of three levels of overflowing blessings.

This is the stage of enjoying peace with God. (1) This refers to the basic relationship in which the relationship of enmity with God has now been transformed into a relationship of reconciliation in Christ. (1) This is a legally firm relationship that no one can break. (Romans 8:38-39)

We must remember this relationship that does not change even if the world changes, and live a long life with God.

The next step is to come before God every day. People who have established basic relationships have the experience of meeting and fellowshiping with Him every day. "We have gained access to this grace by which we stand by faith." (Part 2) So, when we come before the throne of grace, we experience something amazing. Let us praise when we are happy, pray when we have problems, and confess when we sin!

The last step is to taste the glory of God. How amazing this glory is, it can be tasted even in tribulation. because ? Because I know that the results will always be good. This is because tribulation brings patience, patience leads to discipline, and discipline makes wishes come true. And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aste this glorious

work, let us go to the sea of grace and the world of blessing prepared in the
Lord!

26.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 (롬5:6-10) 1994. 8.21

믿음으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졌다. 무엇때문에 이 구원은 놀라운 것인가?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기 기약대로란 말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 부터 계획한 사건이다. (히1:2, 갈4:4) 하나님 은 이 사건을 정한 때에 이루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그것은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6-8절에 보면 우리가 소유한 네가지 구속력있는 올무들을 대신 처리하셨다. (1) 우리의 연약을 대신하셨다. 풀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기진맥진한 처절한 모습을 가리킨다. (렘1:6) (2) 불경건을 대신하셨다. (6하)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벧후2:5-6) (3) 그리고 죄를 대신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모든 죄책과 형벌과 죽음을 대신 하셨다는 것이다. (4) 또한 그는 진노를 담당하셨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전적인 원수였던 우리에게 붓는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가지로 표현되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최대의 증거를 보이셨다. 바로 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를 얻었고(9) 영 적해방을 가져왔으며(10) 하나님과의 교제(10)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11)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우리는 감사하면서 주께 찬송하는 자가 되자!

26. The amazing salvation I received (Romans 5:6-10) 1994. 8.21

This amazing salvation received through faith was achieved through Christ's death on the cross. Why is this salvation amazing? This is because it is an event in which the promise of salvation was fulfilled. Here, as promised, it is not a sudden or accidental event, but an event that has been planned since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Hebrews 1:2, Galatians 4:4) God clearly revealed His faithfulness by completing this event at the appointed time.

Because it is an event of atonement. In verses 6-8, He dealt with the four binding snares that we possess. (1) He took the place of our weaknesses. It refers to the desperate sight of a deer that cannot find any pasture, exhausted and in front of its pursuers. (Jer 1:6) (2) He replaced ungodliness. (6b) He died for the ungodly. (2 Peter 2:5-6) (3) And He took the place of sin. He took on all of our guilt, punishment, and death while we were still sinners. (4) He also bore wrath. He took upon Himself the wrath poured upon us, who were total enemies of God as a result of sin.

It is amazing because it is a proof of God's love.

God's love was expressed in many ways, but the greatest proof was shown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Through this very death, Christians received justification (9), brought about spiritual liberation (10), and became participants in fellowship with God (10) and the joy of God. (11)

Let us be thankful and praise the Lord for this amazing grace of salvation!

27. 생명에 사로잡힌 삶 (롬5:12-21) 1994.8.26

두 아담과 비교하여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사로잡힌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한다. 과거에는 사망이 사로잡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에 사로잡힌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생명에 사로잡히는 삶을 사는가?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 (12-15)

아담은 죄로 인하여 사망을 세상에 가져왔다. 아담 한사람의 선택은 온 인류의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하여 이 죄는 더욱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13-14) 이 사망의 삶이란 총명이 어두운 삶이요, 감각이 없는 삶이며,마음이 굳어진 삶이다.(엡4:18-19)

그러면 생명이 사로잡는 삶이란 무엇인가?(16-19)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선택으로 사망에 있는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자가 된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다.(15)

이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워지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 (요5:24)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믿은 자는 계속 있는 거기에서 돌이키자 마자 약속된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죄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정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생명에 사로잡힌 복된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되기 바란다.

27. A life captivated by life (Romans 5:12-21) 1994.8.26

Paul, who explains the way of salvation by comparing it to the two Adam's, speaks of the blessings of a life captivated by life in Christ. He said that in the past, he lived a life obsessed with death, but now he leads a life obsessed with life. How do you live a life that is captivated by life?

In Adam, all people lived a life obsessed with death. (12-15) Adam brought death into the world because of sin. Adam's choice became the choice of all mankind. And because of the law, this sin became more and more clearly revealed. (13-14) This life of death is a life with dark intellect, a life without sense, and a hardened heart. (Ephesians 4:18-19)

Then what is the life that life captures? (16-19) By the choice of Jesus, the second Adam, we who are in death become those who have been moved to life. This is purely by the grace of God.(15)

What is the way to move from this place of death to the place of life? It is only through the Lord Jesus. (John 5:24) As long as you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fundamentally changed in this position. And as soon as the believer turns from where he is, he can enjoy the promised life of reigning kings.

What are you obsessed with? Is it sin or grace? Is it the devil or God? Is it affection or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

I hope that the blessed life that is captivated by life continues through Christ.

28. 주님이 구한 교회의 영광(요17:20-26) 1994.1.30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고 사도들의 보전을 구하신 주님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천당에 들어가 그 영광을 보게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낙스는 그의 영혼의 닳을 요한복음 17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대로 본문은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고 있다. 사도들의 증거로 믿게 될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다.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이다. (11,12,23) 이 기도는 교회의 연합을 원하신 기도다. 화평과 거룩으로 하나되어 다양한 은사를 나타내는 모임이 교회이다. 마치 프리즘과 같이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사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1) 아버지와 하나인 연합체라고 했고(21) (2)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연합체라고 했으며 (22) (3)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연합체라고 했다. (24)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되어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신대로 죽어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천당의 영광을 보게해달라"는 기도였다. (24)

천당이란 알곡을 모아두는 곳이며 우리 인생 열차의 최종착지이다. 그곳은 장소로 된 곳이며 주님의 구원이 모든 완성된 곳이다.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희락의 장소이다. 영생가진 인류가 모여서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개념이 달라졌다. 성화의 절정이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보다 죽음의 과정을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기도를 믿고 사망 앞에서도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항상 힘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에 따라 그 세계에서 그대로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8. The glory of the church saved by the Lord (John 17:20-26) 1994.1.30

The Lord, seeking his own glory and the preservation of his apostles, prayed that the Church in the world would become one and enter heaven to see its glory. As the religious reformer John Knox said that he considered John 17 to be the anchor of his soul, the text gives us the word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sufficient salvation to enter that kingdom. The Lord's prayer for the church that will believe through the testimony of the apostles appears in two forms.

One is the prayer, "Let us be one!" (11,12,23) This prayer is a prayer for the unity of the church. The church is a gathering that unites in peace and holiness and expresses various gifts. Just as a ray of light appears in various colors like a prism, Christians are a loving community filled with the gifts they have received. In today's Word, it is said that (1) it is a union that is one with the Father, (21) and (2) it is a union that receives the glory of the Father.

(22) (3) It was said that it was a union that received the love of the Father. (24) This kind of community was created because the Lord died as He prayed. With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is prayer began to become concrete.

The other was a prayer, “Please let me see the glory of heaven.” (24)

Heaven is a place where grains are gathered and the final destination of our life train. It is a place where the Lord's salvation is completed. It is a place of joy where there is no crying, pain, or death. It is a place where humanity with eternal life gathers to enjoy the Lord forever. Those who can enter this place pass through the gateway of death, and this death has a completely different concept for Christians. It is the pinnacle of sanctification and the gateway to the world of glory. Most people fear the process of death more than death, but Christians can believe in this prayer of the Lord and face death with a heart of peace. So we must always strive to prepare to enter the kingdom and see its glory.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all the effort in this world, it appears as glory in that world.

29. 복음전파의 부담을 가지라(롬9:1-5) 1994.12.4

바울은 복음의 빛을 진자자요(1:14) 성령의 빛진자요(8:12), 사랑의 빛진자라는 부담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왔다.(13:8) 여기서는 복음전파의 부담을 안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여 강한 책임을 느꼈다.

그 부담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좋은 부담이다. 마음의 근심과 계속되는 고통이라고 했고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는 일종의 일거리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질지라도 원하는 이 마음의 소원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으며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한 모세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랑의 부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그렇게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담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나의 이스라엘 나의 니느웨가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보람되어 살수 있다. 그들은 최대의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시 위대한 복음의 사랑을 알고 증거하지 않으면 문둥이 보다 못하고 지옥에 간 부자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나는 이런 사랑의 부담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자기주의의 껍질 벗어 버리지 못한 삶을 산 것이다.

그 부담은 복음증거를 위한 것이다. 복음의 적용이 그 부담의 목표였다. 아무리 다 잘 알아도 복음을 내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다. 이 복음적용은 우리들의 목적중의 목적이며 사명중의 사명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바울의 영적부담이 내게도 있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자 !

29. Take on the burden of spreading the gospel (Romans 9:1-5) 1994.12.4

Paul lived with a sense of burden as a debtor of the gospel (1:14), a debtor of the Holy Spirit (8:12), and a debtor of love (13:8). Here, he bears the burden of spreading the gospel to his fellow countrymen and he felt a strong responsibility for salvation.

That burden is a good burden that Christians must have. He said that it was a great sorrow of heart and constant pain, and that it was a kind of work of the conscience bearing witness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This burden is also a response to God's love. How precious is this heart's desire, even if it means being cut off from Christ?

It is the same as Esther's confession that if I die, I will die, and it is the same as Moses' prayer that his people would be saved even if his name was erased from the book of life. This burden of love is the response that all of us Christians can have when we taste the love of God. This is because the taste of God's love is so good.

And this burden is on account of his own people, Israel. I can live life most fruitfully when I live as a person with my Israel, my Nineveh. Although they are people with the greatest privilege, they have become opponents of God. This cannot be anything other than historical irony. If we too do not know and

bear witness to the great love of the gospel, we should be seen as living a life worse than a leper and worse than a rich man who went to hell. Because Jonah did not have this burden of love, he was unable to understand God's feelings and lived a life where he was unable to shed his shell of self-centeredness.

The burden is for the gospel witness. The application of the gospel was the goal of the burden. No matter how well you know everything, if you have not applied the gospel to yourself, there is nothing as tragic as that. This application of the gospel is the purpose of our purposes and the mission of our missions. Because this gospel is the only gospel. Let's live our lives in the most blessed way because we also have Paul's spiritual burden!

30. 영원한 승리의 사람들(롬8:31-39) 1994.11.27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승리의 사람들이다. 보혜사이신 성령이 그의 마음에 계시어 날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영화의 자리에 까지 나아가도록 도우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항상 승리만이 놓여있다.

그러면 현재 신자들에게 몰려오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엇보다 사탄의 대적과 송사와 정죄가 언제나 몰려온다.(31-34) 이럴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언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갖 고난으로 공격한다. 35-37절에 보면 환난,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마치 도살할 양같은 처지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나(마귀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그리고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더우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이란 요소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맛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성부의 계획하시고 선택 하신 사랑,성자의 성취하신 은혜, 성령의 적용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무한한 사랑의 바다 속에 이미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현재의 위치는 사랑의 바다와 은혜의 강물이 항상 고난의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주장하며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당한 고난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영원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당신은 얼마나 맛보고 있는가? 지금 내 앞에 흐르는 이 사랑의 강수를 맛보고 현실의 승리를 맛보라!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30. People of eternal victory (Romans 8:31-39) 1994.11.27

Christians are people of eternal victory. This is because the Holy Spirit, the Comforter, dwells in his heart and gives him the power to overcome every day. Only victory is always ahead of Christians because the Holy Spirit, who does not stay still but works constantly, helps us to reach the stage of glory.

So what are the hardships that come to believers today? Above all, Satan's enemies, accusations, and condemnations always come. (31-34) In times like this, our victory is achieved through God's love, God's declaration, and the merits of Christ. Next, the world attacks us with all kinds of hardships. In verses 35-37, it is said that we are like sheep to be slaughtered because the dangerous sword of tribulation, hardship, persecution, and famine is placed before us. And he said that even death and life, angels and powers, me (demons), the present and the future, powers, height and depth, and other creatures cannot break this relationship of love. Moreover, what is even scarier than this is the element of flesh within us.

So what is the way to overcome this hardship?

What is God's solution? Verse 37 say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This means that we can overcome suffering when we

taste the power of God's love. How great is this love? The Father's planned and chosen love, the Son's fulfillment. Because of the grace given and the grace applied by the Holy Spirit, we are people who have already entered the infinite sea of love. When we think about it, our current position is that the sea of love and the river of grace always continue even in the field of suffering. We must know, appreciate, claim, and praise because we can overcome the hardships we have endured forever through the power of love. How much are you experiencing the secret of this amazing victory? Taste the victory of reality because the Lord is already prepared and waiting for you.

31. 보혜사이신 성령님 (롬8:26-30) 1994.11.27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다. (26) 그는 어떤 점에서 우리 의 연약을 도우시는가?

그분은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 (26-27)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를 고의적으로 대적하려는 우리의 거역때문에 탄식하신다. 마치 불량자를 둔 부모의 심령이 탄식하듯이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보기도가 우리 속에서 울려 퍼져야 할 줄 안다. 하박국 선지의 기도처럼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신다. (28-30) 로마서 8:28절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합쳐서 구원의 걸작품을 만드신다. 그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까지 하신다. 그일을 위하여 그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친히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놀라운 걸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넘어서서 얻은 상처와 열 록을 인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의 손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기 때문이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없는데서 감사하며 못생긴 자기 의
작품일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감사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 조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니엘의 사자굴에서의 승리나 나사로 부활은 모두 감사신앙의
열매이다.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오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31. The Holy Spirit, the Comforter (Romans 8:26-30) 1994.11.27

The Holy Spirit came to help us in our weaknesses. So his name was called
Comforter. (26) In what ways does he help our weaknesses?

He helps us through intercession. (26-27) He is said to be the one who prays
for us with indescribable sighs. Because He groans because of our ignorance
of His will and our willful rebellion against Him. Just as the hearts of parents
who have a delinquent child groan, the Holy Spirit groans for us. By imitating
the intercessory prayer of the Holy Spirit, we know that the intercessory
prayer that accomplishes God's will should resonate within us. Like the prayer
of the prophet Habakkuk, the faith of rejoicing and giving thanks to God even
in the absence of others must be confirmed within us.

He also helps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within us. (28-30) As Romans
8:28 says, "The Holy Spirit works to make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He creates a masterpiece of salvation within us by combining all of our lives.
The goal of salvation is to achieve the image of God. For that purpose, he is
the one who personally carries out the beginning, process, and results of
salvation. He foreknew, predestined, called, justified, and glorified. It is the
Holy Spirit who creates this amazing masterpiece. We do our best to do God's

will, but we can come to God even through the wounds and stains we get from falling. This is because it is formed into a beautiful shape in His hands.

As we celebrate Thanksgiving, we can give thanks in the absence of anything and look to the Lord who works together for good even if it is our own ugly work and give thanks. In this thankful faith, God creates his miracles.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Daniel's victory in the lion's den, and the resurrection of Lazarus are all fruits of thankful faith. Let us all live with gratitude following the Holy Spirit, who is our Comforter.

32. 성령의 인도를 피하지 말라 (롬8:12-17) 1994.11.6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신자생활의 사활이 걸린문제이다. 왜 신자는 성령의 인도 받기를 힘써야만 하는가?

첫째, 신자안에는 육적부패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13 절에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성령을 전적으로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받아 거듭난 사람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일에 실패함으로 통곡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마귀는 그를 밀까불듯이 하였다고 했으며 호언장담과는 달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없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만이 생명과 평안을 맛보는 것이다.

둘째, 신자안에는 양자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 15-17 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종의 영(죄악의 노예)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육신에게 빚을 지지않고 성령에게 빚진자의 의식으로 살 아간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세가지 경험이 일어난다.

1) 그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5)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생명이 있는자이다. 2) 그는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갖는다.(16) 세뇌공작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지을 수 없는 성령의 인침이 있게 된다. 3) 그는 그리스도와의 공동후사로서의 영광을 경험한다.(17) 그리스도안의 공동후사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림으로 그 후사의 축복을 맛보는 위치에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신자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14) 여기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수동형으로 된 현재진행형이다.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계속 받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되 열심히 모든 것의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그를 따라가야 한다.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라가자!

32. Do not avoi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Romans 8:12-17) 1994.11.6

Receiving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in the life of a believer. Why should believers strive to receive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First, this is because physical corruption strongly operates within believers. Verse 13 says that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surely die. You can live only by completely following the Holy Spirit. Peter was a person who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was born again, but he failed to follow the Holy Spirit and went to the place of weeping. The devil said that he sieved him like wheat, and contrary to his boasts, he ended up denying the Lord. Therefore, there is no middle ground in the Christian life. Only those who completely foll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experience life and peace.

Second, because the spirit of adoption exists within believers. Verses 15-17 say that Christians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slavery (slaves to sin) but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Because he has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he lives with the consciousness of one who is not indebted to the flesh but to the Holy Spirit. Three experiences happen to him.

1) He was able to have loving fellowship with God through prayer. (15) He is the one with life who cries out, Abba, Father. 2) He has evidence of a good conscience. (16) It is not a result of brainwashing, and there is an indelible seal of the Holy Spirit on his heart. 3) He experiences the glory of being a joint heir with Christ. (17) By enjoying the glory of being a joint heir in Christ from this earth, he is in a position to taste the blessings of being an heir.

And the Holy Spirit within the believer continues to guide even now. (14) The word being guided here is a present continuous form in the passive form. Just as Israel toward the land of Canaan continues to be guided by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the Holy Spirit guides us everywhere. Therefore, he must follow the Word concretely and follow it diligently, giving priority to everything. Let us fully foll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33. 말로 다할 수 없는 소망 (롬8:18-25) 1994.11.16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의 가슴에는 감격과 감사와 헌신이 있다. 로마서8: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소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관련된 소망이기에 특이한 소망이다. 첫째 그 소망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18)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장래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자원해서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란 것이다. 모세는 이 영광에 접하였고 신약의 베드로도 변화산의 이 영광을 잠깐 맛보고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했다. 둘째로는 그 영광은 참자유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킨다. (19-22) 진리와 은혜로 인하여 나온 자유이기에 이 소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굴레에서 벗어난 참 영적인 자유를 얻게 한다. 또한 이 소망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가리킨다.

(23-25) 몸의 구속, 영혼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 소망은 누가 얻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얻는 것이다. 1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23-24 절에는 성령의 첫열매를 가진 사람들이라 했다. 성령은 보증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미 그 소망의 맛을 보게하셨다. 이런 소망을 맛본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상대 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모르두개는 성문지키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권력과 영화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력이 있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이 소망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모심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 뭉뚱그린 아쉬움이 있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적갈망과 인내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33. A hope that cannot be expressed in words (Romans 8:18-25) 1994.11.16

Christians who are guided by the Holy Spirit are characterized by living lives full of hope. Perhaps that is why the hearts of believers are filled with emotion, gratitude, and devotion. What does Romans 8:7 say about the glorious hope of Christians?

That hope is a unique hope because it is a hope related to faith and love. First, that hope is a glory that nothing else can compare to. (18) Paul said that the sufferings of the presen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the future. This is a desire to willingly undergo present suffering considering the glory one will receive in the future. Moses encountered this glory, and Peter in the New Testament also briefly tasted this glory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and called it a glory beyond words. Second, that glory refers to the state of reaching true freedom. (19-22) This hope sets us free because it is freedom that comes from truth and grace. It allows us to rejoice even in tribulation and gain true spiritual freedom from bondage. This hope also points to a state of complete salvation.

(23-25) It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the redemption of the body and soul is completed.

Then who gets this hope? Only the sons of God receive this. In verse 19, they say they are the sons of God, and in verses 23-24, they say they are people who have the firstfruits of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has come into us as

a guarantee and has already given us a taste of that hope. Those who have tasted this hope can relativize all the glory of this world. Mordecai was a gatekeeper, but his heart was courageous and unyielding in the face of any power or glory. This was because he knew in his heart the glory of this hope.

So, in order to achieve this wish, we must follow the Holy Spirit and move forward with longing and patience. It is important to cherish what may or may not be regrettable and move forward with a heart of spiritual longing and patience.

34.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 (롬5:6-10) 1994. 8.21

믿음으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때문에 이 구원은 놀라운 것인가? 왜? 그 것은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기약대로란 말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 부터 계획한 사건이라는 뜻이다. (히1:2, 갈4:4) 하나님 은 이 사건을 정한 때에 이루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그것은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6-8절에 보면 우리가 소유한 네가지 구속력있는 올무들을 대신 처리하셨다. (1) 우리의 연약을 대신하셨다. 풀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기진맥진한 처절한 모습을 가리킨다. (렘1:6) (2) 불경건을 대신하셨다. (6하) 그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벧후2:5-6) (3) 그리고 죄를 대신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모든 죄책과 형벌과 죽음을 대신 하셨다는 것이다. (4) 또한 그는 진노를 담당하셨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전적인 원수였던 우리에게 붓는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가지로 표현되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최대의 증거를 보이셨다.

바로 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를 얻었고(9) 영적해방을 가져왔으며(10) 하나님과의 교제(10)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11)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우리는 감사하면서 주께 찬송하는 자로 살자.

34. The amazing salvation I received (Romans 5:6-10) 1994. 8.21

This amazing salvation received through faith was achieved through Christ's death on the cross. Why is this salvation amazing? why? This is because it is an event in which the promise of salvation was fulfilled. As promised, it is not a sudden or accidental event, but an event that has been planned since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Hebrews 1:2, Galatians 4:4) God clearly revealed His faithfulness by completing this event at the appointed time.

Because it is an event of atonement. In verses 6-8, He dealt with the four binding snares that we possess. (1) He took the place of our weaknesses. It refers to the desperate sight of a deer that has not found any pasture, exhausted and in front of its pursuers. (Jer 1:6) (2) He replaced ungodliness. (6b) He died for the ungodly. (2 Peter 2:5-6) (3) And He took the place of sin. He took on all the guilt, punishment, and death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4) He also bore wrath. He took upon Himself the wrath poured upon us, who were total enemies of God as a result of sin.

It is amazing because it is a proof of God's love.

God's love was expressed in many ways, but the greatest proof was shown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Through this very death, Christians received justification (9), brought about spiritual liberation (10), and became participants in fellowship with God (10) and the joy of God. (11)

Let us live as people who praise and give thanks for this amazing grace of salvation.

35. 죄를 지어야 하느냐? (롬 6:1-11) 1994. 9.11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약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바울은 1-3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죄와 사망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성자로 만들 잠재력을 가진 셈이다.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든든한 근거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죄악의 생산공장인 옛사람(자아, 육, 육신, 욕심등)이 죽었다는 것이다. (갈2:2) 그리고 새생명의 능력안에 사는 사건이 이로인하여 일어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으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게되었다. (엡2:1-) 그 결과, 그리스도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산재해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자신의 위치를 주장함으로 날마다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되었다.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가르치신다. "간주하는 신앙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세력은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 장사된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그대로 주장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35. Should I sin? (Romans 6:1-11) September 11, 1994

Christians who are united with Christ cannot commit sin. This is the promise of the text. Then how can one not commit sin? It lies only in union with Christ.

Those who are united with Christ have the possibility of not committing sin.

In verses 1-3, Paul firmly asserted that we who are dead to sin cannot continue in sin. It is only because of the merits of Christ's death that we can control the irresistible forces of sin and death that we cannot resolve.

Therefore, a Christian has the potential to make his life a saint.

Saints who have achieved union with Christ have a strong basis for not committing sin. This is because the death of Christ is an event that kills our old self.

The old man (ego, flesh, flesh, greed, etc.), the production factory of sin, has died. (Galatians 2:2) And the event of living in the power of new life occurred because of this. He died with Christ, was raised with Him, and is seated with Him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Ephesians 2:1-) As a result, infinite possibilities are available to Christians.

And he who is united with Christ is enabled to taste his daily victory by asserting his own position. Verse 11 teaches us to consider 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t is a faith that is considered." This is an act of faith. The forces of the old man wriggling within us have already died and been buried in Christ Jesus. When we assert our position through faith, we can be freed from sin.

36. 성결하게 사는 방법(롬6:12-14) 1994.9.18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만 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부단한 영적싸움이 일어난다. 바로 이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바울은 어떻게 성결하게 산다고 가르치는가?

1. 몸의 악한 욕망을 거절하라. (12) 이것은 내부에서 나오는 유혹이다. 몸의 사용이란 자연적인 욕망을 초월한 탐욕, 육체의 소욕 그리고 악한 정욕을 가리킨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거 듭났을지라도 비참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디어지며 분별력이 없는 삶이 되어 버린다. (엡4:18)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각 행동 말에 있어서 절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결해 질 수가 있다.

2. 몸의 지체를 죄의 유혹에 허락하지 말라. (13상) 바울은 군대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란 우리의 감각기능, 지적기능, 의지기능 곧 전 인을 가리킨다. 여러가지 외적으로 몰려오는 죄의 유혹을 용납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하와는 뱀을 통하여, 아담은 아내를 통하여, 아간은 환경을 통하여, 다윗은 승리한 후 사울은 끝까지 말쑥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유혹에 넘어졌다. 우리지체를 어떻게 간수 하느냐가 성결한 삶의 방법인 것이다.

3. 몸의 지체를 하나님에게만 드려라. (13상-14)

내부의 욕망과 외부의 유혹을 거절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적극적인 성결방법이 바로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일이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마음을 그리 스도에게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절제를 연습하며 성령충만을 받아야 만하는 것이다.

성결한 삶은 바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36. How to live in holiness (Romans 6:12-14) 1994.9.18

God's grace changes human nature, but it does not change the nature of sin. Therefore, constant spiritual battles occur in the life of a Christian. This is because Christians live sanctified lives through this fight. How does Paul teach to live in holiness?

One., Refuse the evil desires of your body. (12) This is a temptation that comes from within. The use of the body refers to imprisonment that transcends natural desires, the desires of the body, and evil passions. When you cannot control this desire, you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a slave to sin. Even if you are born again, you have no choice but to lead a miserable life. Intelligence becomes dark, senses become dull, and life becomes devoid of discernment. (Ephesians 4:18) Christians can become sanctified when they live with moderation in their thoughts, actions, and words.

2. Do not allow the members of your body to be tempted by sin. (13a) Paul uses military terminology and says that we should not present our members as weapons of unrighteousness, but as weapons of righteousness. The members

mentioned here refer to our sensory functions, intellectual functions, and will functions, that is, the whole person. When we tolerate various external temptations of sin, we have no choice but to commit sin. Eve fell to this temptation through the serpent, Adam through his wife, Achan through circumstances, and after David was victorious, Saul fell to this temptation by not obeying the word to the end. How we take care of our members is the way to live a holy life.

3. Give your body members only to God. (13a-14)

In order to reject internal desires and external temptations, the most active method of sanctification is to offer the members of our body only to God. How will you give it? You must fix your mind on Christ, meditate on the Word of God, pray without ceasing, practice self-control,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 sanctified life is achieved when we do not present our members to sin as weapons of unrighteousness, but only when we present them to the Lord as weapons of righteousness.

37. 순종으로 이루는 거룩 (롬6:15-23) 1994.9.25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만나는 또다른 위험은 자유남용이 란것이다. 이 위험을 잘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감격에 끌리는 삶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 은혜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만나는 위험은 자유를 남 용하기 쉬운 점에 있다. 은혜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바울은 15절에 말한다.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다. 도리어 은혜받은 성도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더욱 더 쉽게 다가온다. 다윗의 경우나 노아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러므로 받은 영적 자유를 잘 관리하여 자유 남용내지 자유악용이란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다.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다. 행복이나 축복이나 영광돌리는 일도 거룩안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룩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 니고 거룩이 없는 축복은 저주이며 거룩없는 영광은 이미 변질된 것이다. 그러므로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 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마에 주께 거룩이란 말이 쓰여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의 목표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이유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의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우리의 값진 구원의 은혜는 대신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신 것이기에 그분을 위해 거룩하게 살어드려야 하는 것이다.

3. 그러면 어떻게 그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적극적 인 순종생활에 있다. (19-20) 죄냐 아니면 의냐 자아냐 아니면 주님이냐라는 관건은 우리의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강함 마 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며, 위엣 것을 찾아 나아가며 물려오는 유혹을 피하여 우리 앞에 있는 쫓대를 행 하여 나아가야만 한다.

은혜 아래 있는 참 자유인인 당신은 값진 자유를 남용하 지 말고 도리어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전사가 되어야한다.

37. Holiness achieved through obedience (Romans 6:15-23) 1994.9.25

Another danger we face in the Christian life is abuse of freedom. People who cannot overcome this danger are likely to live as religious people rather than as free people. However, we must not forget that the Christian life is always a life drawn by emotion.

1. The danger that Christians under grace face is that they are prone to abuse their freedom. Paul says in verse 15 that he cannot sin because he is under grace. To say that we are under grace that sin cannot control does not mean that all possibility of committing sin has disappeared. On the contrary, believers who have received grace are more likely to commit sin. This was the case with David and Noah. Therefore, we must manage the spiritual freedom we have received well and be liberated from the sin of abuse or abuse of freedom.

2. Therefore, the goal of Christians is to reach holiness. Happiness, blessings, and glory must be achieved in holiness. Happiness without holiness is not

happiness, blessing without holiness is a curse, and glory without holiness is already corrupted. Therefore, he says in verse 19, “Present your members as slaves to righteousness, leading to holiness.” The words “Holiness to the Lord” written on the forehead of the Old Testament high priest should be our goal and center. The reason why this holiness is our goal is because we, who were slaves of sin in the past, heard the gospel, received grace, gained righteousness, and gained eternal life. Therefore, since there is someone who paid the price for our precious grace of salvation, we must live holy lives for him.

3. Then how can we move toward holiness? Living a life of active obedience. (19-20) The key issues of sin or righteousness, self or the Lord are the practical problems we fac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holiness, we must take up and put on the full armor with a strong heart, seek the things above, avoid the temptations that come, and move forward by walking the step before us.

As a truly free person under grace, you should not abuse your precious freedom, but rather become a holy warrior who achieves the Lord's holiness.

38. 율법을 주신 목적 (롬 7:7-13) 1994. 10.9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지만 율법의 표준 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자이다. 바울은 계속 율법 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왜 하나님은 우리 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1. 율법의 고유한 성격

에덴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율법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으로 드러나다가 마침내 예수그리스도의 증거 로 완성이 되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을 폐하러 오신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 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하였다.

거룩과 의와 선이다. (마23:23) 율법은 본래 거룩하 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기에 그것을 진실로 맛본 자는 그 맛을 알게 된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율법을 주 야로 목상하는 것을 복이라고 했고(시1:) 형통의 길이 라 했으며 (수1:8)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고 많은 보 화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으며(시19:) 언제 어디 서나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드릴 것을 권한다. (시119:) 당신은 율법의 진정한 그 맛을 알고 있는가?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도 이 맛은 결코 변하 지 않는다.

2. 율법의 역할

과학과 예술이 좋다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 만족을 주 지는 못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 만족을 준다.

거울의 역할을 한다.(7) 저울(자)의 역할을 한다.(9-11) 방망이의 역할을 한다.(9-10) 그래서 바울은 율법 이 온 목적은 우리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라고 했다. 우리가 바로 접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우리를 영적성장의 모습을 보게하며 우리의 죄된 성품을 부수어 쓰러뜨려 새롭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겸손히 그의 말씀을 진 지하게 받아야 한다. 이럴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과 의와 선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에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38. Purpose of giving the law (Romans 7:7-13) 1994. 10.9

A Christian is a person who has been liberated from the law, but who fulfills the standards of the law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aul continues to show God's purpose in giving the law. Why did God give us the law?

1. The unique nature of the law

The law that began in the Garden of Eden was revealed as the Law and the Ten Commandments on Mount Sinai, and was finally completed with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The purpose of the Lord coming to this earth was not to abolish the law, but to fulfill it. Therefore, because the law is a revelation of God, it cannot help but resemble God's character. Paul spoke of the nature of the law in three ways.

Holiness, righteousness and goodness. (Matthew 23:23) Because the law is inherently holy, sacred, and good, those who have truly tasted it will know its taste. Those who tasted it said that meditating on the law day and night was a blessing (Psalm 1:), that it was the path to prosperity (Joshua 1:8), that it was

sweeter than honey from the comb, and that it would be desired more than many treasures (Psalm 19:) We recommend that you make every effort to obtain the Word anytime, anywhere. (Psalm 119:) Do you know the true taste of the law? Whether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this taste never changes.

2. The role of the law

Science and art are good, but they do not provide fundamental satisfaction in our lives. Only the word of the Lord gives true satisfaction.

It functions as a mirror. (7) It functions as a scale (9-11). It functions as a bat. (9-10) So, Paul sai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was to make us very sinful through our sins. He said. This Word that we immediately encounter reveals our sins, allows us to see spiritual growth, and breaks down and renews our sinful nature. Therefore, we must stand honestly before the Word and humbly receive His words seriously. In this case, we can resemble God's image of holiness, righteousness, and goodness. Little by little, we move forward to the blessed position of participating in the divine nature that Peter spoke of.

39.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라 (롬7:1-6) 1994.10.28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한다. 율 법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율법으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있는가? 두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난 자 라는 이해다. 1-4절에는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율 법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율법의 지배아래 사는 자는 자력종교인이며 참만족이 없으며 인 위적인 감격으로 마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시작과 과정 과 결과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다. 하나님으로 부터 나온 것 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고 좋은 열매를 맺 게하기 때문이다 마치 수영을 할때 물의 부력을 믿고 마 음 놓고 말기는 자는 쉽게 뜰 수 있지만 이것을 믿지않 고 자기의 힘으로 뜨려고 하는 자는 뜰 수 없는 원리와 같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냥 믿고 받아드리면 그 순간 부터 그는 조금씩 조금씩 율법의 표준에 이른 자신을 발 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이해해야 한다. (5-6)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대조 시킴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한다. 과거의 상태는 어떠 했는가? 육주의 였고 율법의 표준을 자기 힘으로 도달하 려는 자력 종교인이었다. 그 결과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를 더 큰 슬럼프에 빠지게 했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마치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의 생활과 같다.

자기 힘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의 결 과는 무엇인가? 그 축복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는 마침내 압복장에서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보아야 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살도록 하셨는가? 영주이다.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라고 했다. 율법의 영향에 근거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 결과는 성령의 힘으로 하기에 자원 적이며 진실되며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경험은 내게 있는가를 살피보라. 이것이 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열매이다.

39. Serve with newness of spirit (Romans 7:1-6) 1994.10.28

Romans chapter 7 talk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s and the law. What is my relationship with the law, what is the purpose of giving the law, and how can I resolve the conflict that comes with the law? Two facts must be clearly understood.

One is the understanding that Christians are people who have escaped from the influence of the law. Verses 1-4 use a parable to say that Christians do not live under the law. Those who live under the rule of the law are self-religious, have no true satisfaction, and will end up with artificial joy. We place the beginning, process, and result solely on the grace of God. This is because only what comes from God can satisfy us and bear good fruit. Just as when swimming, those who believe in the buoyancy of water and trust in it can easily float, but those who do not believe in this and try to float with their own strength cannot. It's like a principle that doesn't exist. If one simply believes in and accepts the merits of Christ, from that moment on, he will find himself reaching the standard of the law, little by little.

Another thing is to understand that Christians are people who live und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5-6) Paul speaks of the Christian life by contrasting the past and the present. What were the conditions like in the past? He was a six-centered believer and a self-reliant religious person who tried to reach the standards of the law with his own strength. As a result, the lust of sin worked, causing us to fall into a deeper slump and bear the fruit of death. It's like Jacob's life before his hip bone was broken.

He tried to receive Abraham's blessing on his own, but what was his result? That blessing was given by the grace of the Lord, not by one's own strength. He finally had to experience the moment of his own collapse in the Abok River. So how did he live in his current state? It's a lord. He asked us to serve in the renewal of the Holy Spirit. Instead of living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law, we have become people who liv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came into us. The result is to experience a voluntary, truthful, and abundant lif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ee if you have the experience of serving with this newness of spirit. This alone is the fruit that glorifies God.

40.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요16:16-24) 1994.1.2

우리 본문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다. 조금있으면 너 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말씀이다. (16-19)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강림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 어 나리라는 말씀이다. 그 변화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성공 한다. (16-19)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비참한 고난이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주님은 화목제물이시다. (롬3:25,요일2:2)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과 교제 할 수 있게 되었고 마귀도 도망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히 전할 우리의 메 세지이며 모든 승리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 십자가 든 든히 붙들고 항해하기 바란다.

2.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성령강림 때문에 성공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이 지난 후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났다.그리스도는 높은 신분으로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일하신다. 제한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일하시던 주님께서 성령안에서 일하시는 높은 사역을 하 셧다. 고후3:17-18절에는 그리스도를 영이라고 했다. 성령 하나님과 다른 위이시지만 그 안에서 일체가 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령안에 다시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실감있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울게되고
바울처럼 환난 중에서도 기뻐 한다.

3.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기도응답과 기쁨충만한 삶을 삶을 영위하는
효력을 가져왔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현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금년을 향해하는 우리들은 기도응답과 기쁨충만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40. Christ's intercessory ministry (John 16:16-24) 1994.1.2

We find a strange part in our text. It is a little while and you will not see me,
and a little while and you will see me. (16-19) This refers to the events of
Christ's death and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This means that great
changes will occur with this incident as the starting point. That change can be
said to be the completion of Christ's mediatory work.

1. Christ's mediatory ministry is successful because of Christ's death. (16-19)

Like a woman in labor, Christ's death was a miserable suffering.

However, because of that suffering, a way was opened for reconciliation
between God and sinners. So the Lord is the peace offering. (Romans 3:25, 1
John 2:2)

Anyone who believes in the name of Christ can have fellowship with God, the
devil runs away, and all problems are solved. The love of Christ's cross is our

message to be conveyed forever and is the only basis for all victory. I hope you sail with this cross firmly and firmly in your arms.

2. Christ's mediation ministry is successful because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After the events of death on the cross,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e event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occurred. As a high person, Christ still works in the Holy Spirit. He did a high ministry of the Lord working in the Holy Spirit, working in a limited place and time. In 2 Corinthians 3:17-18 he called Christ a spirit. It is true that although He is a different person from God the Holy Spirit, He works as one within Him. Therefore, we have a realistic experience because of Christ who came back in the Holy Spirit. We cry like Peter and rejoice even in tribulation like Paul.

3. Christ's intercessory ministry brought about answers to prayers and the effect of leading a life full of joy. It is a promise that whatever you pray for in the name of Christ will be answered. It is said that a tremendous change will occur in which current worries will be transformed into joy.

Those of us who are sailing this year must receive answers to our prayers and live a joyful religious life through the intercessory ministry of Christ.

41. 그 날 이후의 큰 변화 (요16:25-33) 1994.1.9

계속되던 고별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다.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사랑하여 그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의 죽음이후에 오는 큰 변화를 전제한 것이다. 3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첫째는 참 지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선 경험적 지식을 갖는 변화가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성품을 접 하며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25절에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인데 주님의 죽음 이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처럼 큰 변화는 없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러 오신 계시의 영이시다.

둘째는 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6,29-30)

제자들은 오랜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변화를 맞보았다. 약한미움이 바뀌어졌다. 일시적 믿음, 기적적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구원하는 믿음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내용이 충실한 것이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경건을 경건에 사랑이 공급된 믿음이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초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날것이다. 26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그 날 이후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보이는 약속이다. 성령의 부어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오신 사랑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행하는 자인 이 될 것이다. 주님의 죽으신 이후에 오는 지식과 믿음과 사랑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41. Great changes after that day (John 16:25-33) 1994.1.9

It was the final part of the continuing punishment sermon. A great change occurred in the hearts of the anxious disciples. By believing in the word of the Lord and loving Him, I was able to possess true peace that comes from Him. This all presupposes the great change that comes after the Lord's death. It was said that three changes will occur.

First, a change in true knowledge will occur. The change to have experiential knowledge beyond theoretical knowledge will occur after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It means knowing God, coming into contact with His character, and experiencing Emmanuel. Verse 25 says that it will happen when the time comes. Not having the knowledge of God is the greatest misfortune in the world, but there is no great change as if this problem is solved after the death of the Lord.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revelation who came to open our eyes.

Second, a change in true faith will occur. (26,29-30)

The disciples experienced a change in his heart after hearing his long sermon. The weak taste has changed. Temporary faith and miraculous faith are transformed into saving faith through the Holy Spirit who came among us. This saving faith is faithful not only in its outward appearance but also in its content. Faith, virtue, virtue, knowledge, knowledge, self-control, self-control, perseverance, perseverance, brotherly love, brotherly love, piety, piety, love. This can only be achieved based on the Lord's death on the cross.

Finally, the change of true love will occur. Verse 26 says, "On that day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love me and believe that I came from God." This is a symbol that shows that a true love relationship will be established after that day.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is an outpouring of God's love. Therefore, we can become people of love. When we step out in faith by following the Holy Spirit, the source of love who has already come, we will become those who practice amazing love. The change in knowledge, faith, and love that follows the Lord's death is promised to God's people.

42.주님이 구한 영광 (요17:1-5)

지구크기의 130배나 되는 태양은 만물의 에너지 체계의 중심이다. 이 태양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의 원천이 되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한 영광은 어떤 것인가?(1,5절)

1. 주님이 구한 영광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 했다. (5)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기에 모든 영광의 근원이다. 잠시동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을 가리우신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다. (빌2:1-6)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를 중심으로 한 영광의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4:12) 이 영광은 우리가 들어갈 천당의 영광이다.

바울이 맛보았고 베드로가 맛보았던 영화로운 빛의 나라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영안이 뜨여져 그 영광을 바로보며 살아가자!

1. 주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구했는가? 이것은 목적이 있는 간구다.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 구속은 자신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사탄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하는 이 구원은 오직 주님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기에 죽음을 통과한 영광을 구한 것이다. 주님의 단번의 행동은 아버지를 영원히 기쁘시게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생가진 인류를 가지고 싶어 하신 것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10:10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신 것이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한 신앙만 이 이 영생을 맛보게하는 것이다. (요5:39)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3. 그러면 주님은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바로 죽음 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순종행위를 통하여 부 활의 영광, 성령강림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것이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순종의 사람들 이다. 주님의 이 놀라운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들은 지금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영광안에서 자신의 빛을 보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42. The glory sought by the Lord (John 17:1-5)

The sun, which is 130 times the size of Earth, is the center of the energy system of all thing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Christ, the Creator of this sun, is the source of all glory. What is the glory that the Lord prayed for in today's text? (verses 1, 5)

1. The glory the Lord sought was the glory he had with his Father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5) Because he was originally God, he is the source of all glory. He came in the form of flesh with veiled glory to save us for a little while. (Philippians 2:1-6) The Book of Revelation clearly shows the order of glory centered on the throne. (4:12) This glory is the glory of heaven we will enter.

It is the glorious kingdom of light that Paul tasted and Peter tasted. Let us who live on this earth have our spiritual eyes opened and live to see its glory!

1. Why did the Lord seek His own glory? This is a prayer with a purpose.

First, it was a supplication for the glory of his father. The purpose of His coming to this earth was to achieve redemption. That redemption is possible only through one's own death. This salvation, which makes us enemies with Satan and unity with God, was possible only through the death of the Lord, so we sought the glory that passed through death. The Lord's one action is to please the Father forever. And it was to give eternal life to his people. God's wish to have mankind with eternal life is only now being realized. According to John 10:10, the purpose for which the Lord came was for us to have life and for this life to be abundant. This eternal life was defined as the knowledge of God through Christ. Therefore, only faith based on the Bible can allow one to taste this eternal life. (John 5:39) And because of knowing Christ, a change occurs where everything becomes relative.

3. Then how did the Lord receive glory? This was accomplished through death. Through the act of obedience on the cross, the glory of resurrection and the glory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occurred.

Who will share in this glory? They are people of obedience. This amazing prayer of the Lord has been answered, and we are now able to lead a life captivated by its glory. I hope you live a life where you see your own light in this glory.

43. 주님이 구한 보장(요17:6-19) 1994.1.23

본문은 사도들을 위한 기도이다.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을 위한 기도는 곧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사도들을 위한 기도 역시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11, 15절에 보면 저희를 보전해 달라는 기도이다. 주님의 이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보전을 받는다.

1. 분리로부터의 보호를 구하셨다. 6-10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아버지의 것"에 대한 말이 나온다. 그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를 말한다. 11절에 하나가 되기 위해 보전해 달라는 기도는 이 연합을 헐어버리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말이다. 바벨탑심판으로 흩어진 온 안 류는 그리스도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도록 되어있다. 다양성있는 통일성이 있는 것이 교회이다. 이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로 오는 것 보다 내부로 부터 온 다. 바로 이것은 육이란 것이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2.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셨다. 15절에 보면 악에 빠 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은 악한 자인 마귀 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의 기도 때문에 이 원수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마귀의 최종무기인 사망 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도록 보전해 주셨다. 이 것이 주님이 기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다.

3. 죄로부터의 보호를 구하셨다.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케 하기를 구한 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죄악에 빠지되 아주 빠지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의 이기도 덕분이다. 우리 자신이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는 거룩해 진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화평과 거룩을 이룬 다양한 통일성을 지닌 공동체인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하신 것이다.

43. The Protection sought by the Lord (John 17:6-19) 1994.1.23

The text is a prayer for the apostles. Prayer for the apostles, who will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is prayer for the church. The prayer for one's own glory is also for the church, and the prayer for the apostles is also a prayer for the church. In verses 11 and 15, it is a prayer for their preservation. Thanks to this prayer of the Lord, we receive eternal preservation.

1. He sought protection from separation. A repeated phrase from verses 6 to 10 is the reference to “what is the Father’s.” They speak of the church, the chosen people who are one with the Father. The prayer to preserve unity in verse 11 means that there is an enemy's power that destroys this unity. All Andrews who were scattered by the Tower of Babel judgment are destined to become one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The church is a unity that exists in diversity. What breaks this one down comes from within rather than from the outside. This is flesh. Despite this, the Lord's church has no choice but to become one.

2. He sought protection from Satan. In verse 15, there is a prayer asking not to fall into evil. These words are a prayer for deliverance from the hands of the evil one, Mark. In this worl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we are destined to be saved from the attacks of this enemy because of the protective prayer of Jesus. He has preserved us so that even death, the devil's ultimate weapon, cannot destroy us. This is the content of the intercessory prayer the Lord prayed for.

3. He sought protection from sin. In verse 17, the desire to sanctify them with the truth refers to protection from sin.

It is thanks to this prayer of the Lord that we do not fall completely into sin and have hope again. When we arm ourselves with truth, we become holy. The church that the Lord wants is a community with diverse unity that achieves peace and holiness. This is what God prayed for, so that he would be protected from all kinds of difficulties as he passed through the world.

44.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요19:1-19) 1994.2.27

제자들 앞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되심을 증거하신 주님은 이제 최대의 역사적 재판정 앞에서 죄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증거하셨다. 이 사실은 빌라도 관정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나?

빌라도의 심문을 통해 증명되었다. (1-6) 세차례에 걸친 심문 속에서 주님은 아무죄가 없는 사람임이 분명히 증명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려고 유대인들과 흥정하지만 마침내 그들의 끈질긴 고소 앞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 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넘긴다. 최고의 재판정에서 주님은 죄 없는 분이심이 증명되었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넘기워 졌다. 유월절의 마지막 예비일에 그는 아사셀 염소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죄없는 어린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 심문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7-1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어떻게 고소했는가? 행악자로 고소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들이란 주님의 주장 때문이다.

신성모독죄로 죽이려는 것이다. 그것도 가이사에게 무척이나 아부하는 방법으로 죽이도록 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외식 주의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무죄성이 증명된다. 그들의 고소내용을 분명히 아는 주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심문 앞에서도 자신의 하나님 아들되심을 증거 하신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그런 주장했더라면 그는 다윗왕이나 헤롯왕보다도 비양심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유대 군중들의 주장이 증명한다. (13-19) 빌라도의 아내의 충언에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친다. 호산나 찬송하던 그 무리가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마귀는 인정을 이용하 다가 마침내 자기의 주무기인 사망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사망으로 마귀를 없이 하셨다. 한결같이 주님은 여기서도 무죄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흠없는 어린양이심을 증명하시려 했기 때문이다.

44. The spotless Lamb of God (John 19:1-19) 1994.2.27

The Lord, who testified before his disciples and before the Jews that he was the Son of God, now testified before the greatest historical court that he was the sinless Lamb of God. How was this fact proven in Pilate's palace?

This was proven through Pilate's interrogation. (1-6) Through three rounds of interrogation, it was clearly proven that the Lord was an innocent person.

Pilate bargains with the Jews to let him go, but ultimately hands him over to the cross to preserve his political life in the face of their persistent accusations. In the highest court the Lord was proven sinless and He was handed over to be crucified. On the final preparation day of Passover, he appeared as a sinless lamb to bear the sins of his people as the Azazel goat.

This was also proven through interrogation of religious leaders. (7-12) How did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accuse him? He was accused of being an evildoer.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Lord's claim to be the Son of God.

He wants to kill him for blasphemy. He also had Caesar kill him in a very flattering way. Hypocrisy, not following the truth, crucified the Lord. Here we see His innocence proven. The Lord, who clearly knows the details of their accusation, testifies that He is the Son of God even in the face of this shameful interrogation. If Jesus had made such a claim even though he was not God, he would have been more unscrupulous than King David or King Herod. However, because the Lord was truly God, He showed Himself sinless.

The claims of the Jewish crowd prove it. (13-19) At Pilate's wife's advice, Pilate tried to let go. However, the Jews shout that Jesus should be crucified. The group that was singing Hosanna is shouting to kill the Lord. The devil took advantage of humanity and eventually tried to kill the son with his main weapon, death, but God got rid of the devil with death. Invariably, the Lord indirectly proved his innocence here as well. This is because He wanted to prove that He is the spotless Lamb who saves us from sin.

45.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라! (요19:17-30) 1994.3.6

2000년전 유대땅의 골고다라는 곳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무슨 의미를 안겨주는가? 당신은 그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의 죽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었다. (19-22) 빌라도의 불법 재판으로 군병에게 넘기워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는 장면이 오늘 나온 본문이다. 그 십자기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된다. 대제사장이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다. 이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분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렇게 움직이셨다. 겹손중의 겹손이요 기적중의 기적이요 지혜중의 지혜이며 사랑 중의 사랑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라. 그리고 응답하자!

그의 죽음은 참사람으로서의 죽음이었다. (23-29) 십자가상의 7마디 중 3마디가 여기 나온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고생하시다가 죽으셨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군병들이 옷을 나눠가진 것은 그가 수치를 당하며 죽은 것을 보인다. 그는 온갖 수모를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고통의 순간 중에도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했다. 사람 관계에서도 여지없이 참 사람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의 증거로 "목마르다"는 외마디 소리를 치셨다.

신경과 관절과 오장육부의 고통은 처절하였다. 이 마지막 절규를 하신 것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했다. 성경은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보화이며 유일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참하나님으로서 참사람으로서 죽으셨다.

또한 그는 중보자로서 죽으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담은 헐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인 것이다. 날마다 그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45. Look at the cross at Golgotha! (John 19:17-30) 1994.3.6

What does the cross of the Lord, erected 2000 years ago at a place called Golgotha in Judea, mean to me? What do you think when you see that cross?

His death was the death of God. (19-22) Today's text depicts Jesus being crucified after being handed over to soldiers after an illegal trial by Pilate. On the cross, the inscription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is written in Roman, Greek, and Hebrew. The high priest asked to include the word "self-proclaimed," but it was refused. The appearance of this cross testifies to us that He truly died as God. That is how the hand of God's providence moved. Look at the death of this cross, which is humility of humility, miracle of miracles, wisdom of wisdom, and love of loves. And let us respond!

His death was the death of a true person. (23-29) Three of the seven words on the cross appear here. Although He is God, He suffered as a man and He died. What is the evidence? The fact that the soldiers shared his clothes shows that he died in shame. He suffered all kinds of humiliation. And even in his final

moments of death, he entrusted his mother to his disciple. Even in hi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e showed himself as a true human being. and!

As evidence of physical pain, he uttered the single word, “I am thirsty.”

The pain in my nerves, joints, and internal organs was excruciating. It is said that this final cry was to fulfill the Bible. The Bible can be said to be the treasure and only legacy that the Lord loved until death. He died as true God and true man.

He also died as a mediator. He is the only way to meet God by restoring our relationship with God. It is the cross of Golgotha that breaks down all the walls in front of us and allows us to come before God. Let us come to God through the work of the cross every day!

46. 주님이 준비하신 부활아침식탁 (요21:1-14) 1994.4.3

빈무덤의 사건, 제자들의 변화, 교회의 폭발적 부흥과 신 자개인속의 부활생명의 악동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 한 증거들이다. (세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참 위로를 주는 식탁이었다. (1-12)

베드로를 위시하여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 으러간다. 거기서 밤새도록 한마리 잡지못했다. 기진맥진 하여 허탈 속에 빠져 있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낚았다. 더우기 해변에 올라오자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그 식탁은 그들을 위한 위로와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식탁이었다.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이다. 예 수님을 믿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기 때 문이다.

이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식탁이었다. (46) 그들은 여기서 두가지 순종을 배웠다.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물을 던졌다. 덮어놓고 순종했 을때 기적을 맛보았다. 주님은 정확한 방향까지 아시는 전 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생선을 조금 가져와서 조반 을 먹으라고 초청하셨다. 오라는 말에 그저 순종할 때 씬 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순 종의 얼마나 복된가? 순종은 기적보다 낫다. 그만큼 순종 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만큼 진실된 사건 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활의 참 증거를 얻는 식탁이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었다. 그들은 무엇보다 부활의 확증이 중요하였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주님의 부활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이 식탁을 배설하시고 초청하시고 같은 식탁을 대하신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지울수 없는 부활의 확증을 갖게하였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것이다.

46. The Resurrection Breakfast Table prepared by the Lord (John 21:1-14) 1994.4.3

The incident of the empty tomb, the changes in the disciples, the explosive revival of the church, and the evil movement of resurrection life among the believers are clear evidence that the Lord has been resurrected. (To the third disciples. What does the Lord's invitation to come and have breakfast at His appearance mean to us?)

This was a truly comforting table. (1-12)

Seven disciples, including Peter, go fishing on the Sea of Galilee. I didn't catch a single fish all night long there. I was exhausted and collapsed. Then the Lord appeared. By obeying the command to lower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they caught a lot of fish. Moreover, when he came ashore, he prepared breakfast and invited them over. That table was a table that brought comfort and courage for them. Christianity is a religion of comfort. This is

because those who believe in Jesus and come to him will definitely be comforted.

This was a table that taught the importance of obedience. (46) They learned two obediences here. I cast my net without even knowing who was standing on the beach. When I covered up and obeyed, I experienced a miracle. The Lord is omniscient and omnipotent who knows the exact direction. Then he brought some fish and invited them to have breakfast. When you simply obey the command to come, you will find rest and receive grace. How blessed is the pure servant who goes out as he is? Obedience is better than miracles. The reason it requires so much obedience and effort is because it is such a true event. This was the table where we got the true evidence of the resurrection.

The disciples were chosen to be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For them, confirmation of resurrection w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 order in which the fact of the Lord's resurrection, which they saw with their eyes, heard with their ears, and touched with their hands, was engraved in their hearts was very important. That is why the Lord deliberately prepared this table, invited us, and served the same table. The Lord's resurrection brought them great comfort, taught them the importance of obedience, and gave them the indelible confirmation of His resurrection. This grace is ours.

47.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 (요21:15-20)1994.4.10

부활 이후 영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십자가로 완성 된 구속이 적용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는 말씀은 구속을 적용하라는 유언같은 사명이 되어 버렸다.

교회의 제일의 사명은 무엇인가?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찾는 영혼을 주님 닮도록 양육하는 일이 제일의 사명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은 바로 전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심으로 잃은 자를 찾아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함이 교회의 사명임을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28장19-20절에는 전도와 양육을 한 마디로 제자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 두가지 사실 이 선행되어야한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자아를 부인하는 마음이다.

- (1)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셨다. 네가 이사람들 보다 나를더 사랑하느냐?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셨다. 아 카페의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현재의 사랑이었다. 첫사랑의 뜨끈한 사랑으로 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랑은 최상의 사랑이 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었다.

(2) 자아가 부인된 마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베드로의 답변은 자아가 부인된 자의 겸손과 온유한 사람 의 대답이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만 할 수 있다는 전적부인의 모습이 아닌가 ? 기고만장한 베드로의 자아는 많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함으로 자아가 부서지고 주님 만을 전 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 을 감당키 위하여 베드로와 같은 사랑과 자아가 깨어짐으 로 흘러나오는 겸손과온유의 향유로만 가능한 것이다.

47.Do you love me ? (John 21:15-20) 1994.4.10

After the resurrection, amazing changes occurred in the spirit world. This is because the redemption completed through the cross was applied. The words to feed and shepherd my sheep have become a testament-like mission to apply redemption.

What is the primary mission of the church? Evangelism to save lost souls and nurturing found souls to resemble the Lord are our primary missions. As the resurrected Lord first appeared to his disciples and said, "Just as his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so do I send you," refers to evangelism. And in today's text, the resurrected Lord showed that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find the lost and make them resemble the Lord by telling them to feed and shepherd my sheep. In Matthew 28:19-20, it is said that evangelism and nurturing are, in one word, making disciples.

What must I do to fulfill this mission? Two facts must come first. It is a heart that loves the Lord and denies self.

- (1) Only those who love the Lord can do this, so the Lord asked Peter three times repeatedly.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asked for true love. Ah, the love of cafes. This is because only those who love unconditionally can

fulfill this mission. And this love was the love of the present. This is because only with the passionate love of first love can we fulfill the Lord's mission. Also, this love was the best love. The Lord demanded the greatest love in the world. It was a love that took all of one's heart and one's life.

(2) Only a mind that has denied itself can carry out this mission.

Peter's answer was that of a person with humility and meekness who had denied self. Isn't this a complete denial that only the power of the Lord can do it? Peter's arrogant ego was shattered after many failures, and he became a person who relied entirely on the Lord. In order to carry out this mission, the church can only do so through love like Peter's and the enjoyment of humility and gentleness that flows from the broken ego.

48. 하나님으로 부터 난 구원 (롬9:6-18) 1994.12.11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자신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에게 근거를 두었기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서 난 이 구원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의 신실한 약속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이삭의 씨만이 그의 자손이듯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고전15:3-4,요5:24) 이 신실한 약속에 근거를 둔 신앙이기에 우리에게는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나dana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축복을 받았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를 두었다.

바로 이 신실한 약속을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만이 믿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다. 리브 가의 두 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선택했다고 했다. 큰 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고 했다. 이런 선택이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복 중에 짓기전 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고 했고(1:5) 이 사야43:1에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다. 신약의 바울은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심에 대해서 찬양했으며 (엡1:4)

베드로는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할 때 원시안적인 신 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3. 이것은 역시 그의 기쁘신 뜻에 근거를 두었다.

14절이하에 보면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예로들어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내가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고,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 도 아니고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고 했다." 그리고 바로를 세운 목적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위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크신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에 경외심으로 가득 찰 수 밖에 없다.

48. Salvation from God (Romans 9:6-18) 1994.12.11

Christian salvation is eternal because it is not based on oneself but on God. So this salvation from God has several characteristics.

1. This is based on God's promise.

The "word of God" in verse 6 refers to His faithful promise. Just as not all of the Israelites are Israel and not all of Abraham's descendants are Abraham's descendants, but only Isaac's seed is his descendants, only those who believe in the word of promise are saved children of God.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us to have faith according to the Bible. (1 Corinthians 15:3-4, John 5:24) Since it is a faith based on this faithful promise, we have no choice but to live as faithful people. Nathanael had faithful faith. Because I had it, I was blessed to see greater things than this.

2. This was based on God's election.

Paul's explanation is that only those chosen by God are supposed to believe in this faithful promise. Of Rebekah's two sons, Jacob was chosen to be hated by God, while Jacob was chosen to be loved by God. It is said that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This choice did not begin with humans, but was made by God. Yermiya said that he was chosen by God even before he was born in the blessing (1:5), and in Isaiah 43:1, it is said that he called Ureo by name. Paul in the New Testament praised God for choosing me before the ages began (Ephesians 1:4-). Peter said that we can have primitive faith when we confirm our election and calling.

3. This is also based on his good pleasure.

In verses 14 and below, Paul uses the example of Moses and Pharaoh to reveal that God's sovereignty is based on His good pleasure. He said,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and I will have pity on whom I will have pity. It is not because of those who want to or those who run, but because of God who is merciful." And the purpose of establishing Pharaoh was to "show my power and have my name spread throughout the earth." Because we have been saved by this amazing love, we cannot help but be filled with awe as we live in accordance with God's great will.

[The end of Living Stream Book 1(1994)]

Soli Deo Gloria